

文學碩士 學位論文

儒教文字圖 “忠”자에 나타난 象徵性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材 學科

李 周 宣

2019년 12월

儒敎文字圖 “忠”자에 나타난 象徵性 研究

지도교수 오 세 덕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이 주 선

이주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정병호 

심사위원 장봉진 장영민

심사위원 고시영 

경주대학교 대학원

2019년 12월

<목차>

<목차>	i
<그림 목차>	ii
<표 목차>	iii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고찰	2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4
II. 연구배경	6
1. 유교문자도의 시작과 변천	7
1.1 문자도의 기원과 변천	7
2.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서민들의 유교문화	11
3. 19세기 서민들에게 나타난 유교문자도	15
III. 유교문자도 “충(忠)”자에 나타난 상상과 특징	20
1. 조선 유교의 “충(忠)”사상	20
2. 유교문자도 “충(忠)”자에 나타난 특징	22
2.1 지역적 특징	22
2.2 도상의 특징	23
1) 용	23
2)새우	28
IV. 유교문자도의 “충(忠)”에 나타난 용·새우의 양상	30
1. 서울경기 및 강원도 문자도에 나타난 용·새우의 양상	31
2. 경상도 및 전라도 문자도에 나타난 용·새우의 양상	40
3. 제주도 문자도에 나타난 용·새우의 양상	46
V. 결론	48
참고문헌	50
표 목 록	54
국문초록	72
ABSTRACT	74

<그림목차>

- <그림 1> 백수백복도, 8폭 병풍, 지본채색, 34×50cm
- <그림 2> 38서체의 일부 도상, 송시열의 원문에 나온 서체의 일부
- <그림 3> 38서체의 일부 도상
- <그림 4> 비백혁화, 박동기작, 지본수묵, 34.5×7cm
- <그림 5> 문자도 충, 지본채색, 69.0×39.0cm, 선문대학교 박물관
- <그림 6> 유교문자도, 8폭 병풍, 지본채색, 38.6×102cm, 경산시립박물관
- <그림 7> 문자도, 8폭 중 2폭만 족자형식, 35×98cm,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 <그림 8> 효제문자도, 42.5×74.2cm, 호암미술관 소장
- <그림 9> 수문자도, 천, 족자, 39.6×72cm,(중국작품)
- <그림 10> 복문자도, 지본채색, 68×134cm,(중국작품)
- <그림 11> 수문자도, 천, 족자, 79.8×145cm,(중국작품)
- <그림 12> 충문자도, 8폭, 지본채색, 34× 147cm, 영남대학교 박물관
- <그림 13> 충 문자도, 8폭, 지본채색, 28×78cm,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 <그림 14> 충 문자도, 8폭, 지본채색, 34×91cm,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 <그림 15> 충 문자도, 8폭, 지본채색, 38.6×102cm, 경산시립박물관
- <그림 16> 충 문자도, 8폭, 지본채색, 34×83cm,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 <그림 17> 유교 문자도, 8폭 병풍, 28×78cm,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 <그림 18> 유교문자도, 지본채색, 128×35.5cm,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 <그림 19> 유교문자도, 이규황작, 지본채색, 105.5×33.5cm, 이명구 소장
- <그림 20> 효제문자도, 재본채색, 30×74cm, (북한문자도)
- <그림 21> 유교문자도, 8폭 병풍, 34×83cm,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 <그림 22> 성학십도(聖學十圖), 10폭 병풍, 지본채, 38.4×81cm, 숙명여자대학교 소장
- <그림 23> 안동문자도, 8폭 병풍, 지본채색, 74×29.5cm,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 <그림 24> 안동문자도, 8폭 병풍, 지본채색, 72×29.5cm,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 <그림 25> 남도효제문자도, 8폭 병풍, 지본채색, 34×86cm
- <그림 25> 제주도문자도, 지본채색, 47×168cm,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표 목차>

<표 1> 유교문자도에 나타난 각 문자별 분석

<표 1-1> 유교문자도 도상 목록

<표 2> 표38書體의 전거(典據)와 풀이

<표 3> 유교문자도의 고사의 내용과 상징과 의미

<표 4> 지역적 유교문자도의 뚝을 ‘곤(|)’에 그려진 용과 새우의 유무

<표 5> 지역적 유교문자도의 뚝을 ‘곤(|)’에 그려진 용과 새우의 양상과 백분을

<표 6> 어변성룡과 새우의 화작

<표 7> 유교문자도 용·새우에 대한 이황·이이의 영향을 받은 지역적 양상

<그래프>

<그래프 1> 지역적 유교문자도의 뚝을 ‘곤(|)’에 그려진 용과 새우의 그래프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유교문자도(儒敎文字圖)는 문자도의 한 종류로서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를 주제로 유교의 교훈과 장식성을 위해 병풍으로 제작되어 그 의미가 전해진다. 우리나라의 문자도는 중국에서 유입되었는데 들어온 시기는 조선조 광해군 시대에 명나라에 간 남평현감 조유한(趙維韓)이 백수도(百壽圖) 문자도를 임금께 진상하면서이다.

문자도(文字圖)에는 수복문자도(壽福文字圖), 벽사문자도(僻邪文字圖), 화조문자도(花鳥文字圖), 책거리문자도(冊巨里文字圖), 유교문자도(儒敎文字圖)가 있다. 수복문자도(壽福文字圖)는 장수(長壽)와 복(福)을 기원을 담고 있고, 벽사문자도(僻邪文字圖)는 귀신과 악귀를 쫓아 내고 가정의 무탈함을 위해서 부적(符籙)의 의미를 표현하며, 화조문자도(花鳥文字圖)는 부귀(富貴)와 장수(長壽)를 기원하고, 책거리문자도(冊巨里文字圖)는 학문 증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유교문자도는 민화의 일부로 제작 되었다. 민화의 기원을 보면 세화(歲畵)와 문배(門排)의 고대 민간의 벽사문첩(辟邪門帖)에서 시작되었는데 세화란 새해를 맞이하여 송축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고, 문배는 새해를 맞이하여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그림을 그려 대문에 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벽사(僻邪)의 의미가 강하게 내재 되어있다. 그 원형은 중국 남송시대의 주희(朱熹)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조선에 도입이 된 후 18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면서 민화와 결합되어 19세기에 비로소 백성들에게 온전히 정착되었다.

유교문자도는 사대부 양반가에서 쓰이는 것이 아닌 일반 서민들에게 쓰이던 것으로 소학의 교훈과 장식성이 감미(甘美)되어진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유교의 성리학적 사유가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성리학적 사유를 품고 있는 것은 문인화를 중심으로 한 전통회화에도 잘 나타나는데 전통회화에서 민화는 폄하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대부가 즐기던 문인화에 비해 시대적 관례로 문명화(文明化) 되지 않은 것이 많고, 대부분이 무명(無名)의 작가들인데다가 궁중의 화원들이 그려놓은 서화를 모방 압축시키고 단순화하여 그린 것이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문인화는 잘 훈련되어지고 교육 받은 궁중의 화원들이 사실적으로 사물을 섬세하게 그 시대의 화풍에 맞추어 그렸다면 민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민화는 대부분이 작자미상으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고 기준 편년을 잡기가 쉽지 않아 양식적인 연구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민화와 결합된 유교문자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덟 글자가 가운데 “충(忠)”을 제외한 일곱 글자 즉 효(孝), 제(悌),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는 한 가지 현상으로 대체되었는데 “충(忠)”자만이 오직 두 가지 양상으로 대체되어 표현되었다.

“충(忠)”자를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유교사상 핵심은 “충(忠)”과 “효(孝)”이다.

여덟 글자 중 “충(忠)”자의 도상을 보면 가운데 중(中)와 마음 심(心)자로 이루어져 있다. 즉 마음에 중심이 세워져있다 라는 뜻으로 마음에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며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다. 논어의 학이(學而)편에 보면 “충(忠)은 헌신하는 것이다. 절의(節義)를 지키는 자는 임금을 섬기되 그 몸을 버리는 것 (事君能致其身)”¹⁾ 이라 했다. 그러므로 신하된 자는 임금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하며 섬기는 것이 도리(道理)이다. 이러한 군신 관계는 유교문자도에도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주제의 소재가 꼬부라진 <새우>이고, 다른 하나는 큰 용이 그려진 <어변성룡도>이다. <어변성룡도>는 “충(忠)”안에 ‘中’의 뚫을 곤(丨)이 화려하게 용이 감싸져 있는 그림이고, <새우>가 주제로 그려진 그림은 “충(忠)”자의 뚫을 곤(丨)에 커다란 새우가 구부러져 엮어져 있는 그림이다.

2. 선행연구 고찰

이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유교문자도 “충(忠)”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학술지, 민화잡지, 학위 논문, 등에서 75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장르별로 분석하여 고찰하여 살펴보니 <표 1, 표 1-1, 표 목록 참조>문학과 문화, 의상창작, 매거진, 애니메이션 등은 유교 문자도가 현 시대에 한국적 이미지로 경제활동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과 도서의 유형별은 교육의 위주로 서술되어 있었다. 단체에서 발간된 학술지에서 나온 민화연구는 “충(忠)”자와는 큰 관련이 없었다. 학위 논문에서는 “충(忠)”자의 연구가 다소 있었다.

김성찬은 「효제문자도의 그래픽디자인 요소로서 해체적 성향연구」²⁾ “충(忠)”자에 담긴 한(漢)나라 영양왕이 초(楚)나라 항우에게 포위되었을 때 충신 기신이 초(楚)군을 물리친 이야기의 묘사를 설명하였다. 유장웅의 「한국전통민화 중 문자도에 관한 고찰」³⁾에서 “충(忠)”자는 한(漢)나라 영양왕이 초(楚)나라 항우에게 포위되었을 때 충신 기신이 초(楚)군을 물리친 이야기와 하(夏)나라의 걸왕이 궁 안에서 못을 파고 주색에 빠져 놀아나고 있을 때 충신 관용방이 죽음을 당하면서 까지 올린 충언의 한마디가 걸왕을 깨우쳤다는 이야기, 용문 폭포 밑 봄이 되면 잉어가 서로 앞을 다투어 튀어 올라 용이 되려고 한다는 어변성룡(魚變成龍)의 설화가 있다고 했다. “충(忠)”자의 상징은 출세와 입신 그리고 충절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성희는 「조선후기 민화의 효제문자도 연구」⁴⁾에서 “충(忠)”자의 그림은 잉어, 용, 새우, 대합, 대나무가 교묘히 배치되어 있는데 잉어가 용의 꼬리를

1) 오소미, 「父母와 子女 道德 意識에 關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p. 22.

2) 김성찬, 「효제문자도의 그래픽디자인 요소로서 해체적 성향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3) 유장웅 「한국전통민화 중 문자도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4) 김성희, 「조선후기 민화의 효제문자도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물고 있는 형상이고, 새우와 대합은 마음 심(心)자에 좌우로 배치되어 표현했고, 때로는 중(中)자의 가운데 획을 나무로 대신하여 새우를 구부려 그렸고 혹은 거북이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충(忠)”자는 기신광초(紀信誑楚)의 내용이 담겨 있고, 상징으로는 용은 임금, 서책을 등진 거북은 은나라에 사는 충신의 충언, 새우와 대합은 화합의 상징과 충절을 의미한다고 했다. 전지윤은 「유교문화가 조선후기 민화에 미친 영향」⁵⁾에서 “충(忠)”자는 한(漢)나라와 초(楚)나라의 기신광초(記信匡楚)의 고사와 대나무의 충절의 상징과 어변성룡을 축하하는 가재모양을 하고 조개와 거북 등이 그려져 있다고 했다. “충(忠)”자의 상징은 용은 임신출세의 등용문이고, “충(忠)”자에 주된 상징물인 새우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기를 기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다루어졌고, 잉어는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선비에 비유된 것이고,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 새우와 대합은 국가에 등용되어 국왕에게 충성을 하고 군신간의 화합을 이루며 경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서민자의 「조선후기 효제문자도에 반영된 孝·忠사상 연구」⁶⁾에는 유교문자도의 “충(忠)”에 대하여 중국의 하나라 임금 걸과 관용방에 대한 고사와 문자도에 관용방처럼 충실한 신하에 관한 고사성어 ‘龍逢直節’, ‘鰲龍直節’, ‘龍鳳直節’, ‘龍逢直節’, ‘一芋貞節’ 등의 화제가 등장한다고 했다. 또한 ‘比干爭諫’은 상(商) 나라의 충신 비간(比干)이 왕의 음탕함을 충언하였다 하여 ‘龍方比干’의 화제도 등장하였다고 했다. “충(忠)”의 상징은 군신간의 화합이라고 하였다. 김윤정은 「조선후기 효제문자도 연구」⁷⁾에서 용봉직절(龍逢直節)이라 하여 은나라의 걸 왕에게 충언을 하다가 처형된 관용방의 곧은 절개의 표현으로, 그가 죽자 뜰에서 서책을 등에 진 거북이가 나왔다는 이야기와 용은 등용의 의미, 잉어는 고군분투하는 선비, 새우와 조개,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한다. 임동환은 「한글을 활용한 효제문자도 디자인연구」⁸⁾에서 “충(忠)”자는 기신광초(記信匡楚)와 용문협곡의 이야기가 들어 있고, 경쟁에서 승리하여 과거 급제와 신하의 충성을 의미한다고 했다. 전은자는 「제주도 효제문자도 연구」⁹⁾에서 “충(忠)”자는 어변성룡(魚變成龍)이라 하여 용과 잉어, 대나무, 새우, 대합, 거북이를 그려 국가와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양순영은 「강원지역의 효제문자도를 활용한 패턴 디자인 개발」¹⁰⁾에서 용문협곡에 관계되는 고사와 용은 경쟁에서 승리하여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라 충신이 된다는 이야기라고 서술했다. 장현주, 장애란은 「문화원형을 활용한 패션상품개발을 위한 조형성 분석·민화 효제문자도 중심으로」¹¹⁾에서 기신광초(記信匡楚)의 고사와 용봉직절(龍逢

5) 전지윤, 「유교문화가 조선후기 민화에 미친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6) 서민자, 「조선후기 효제문자도에 반영된 孝·忠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7) 김윤정, 「조선후기 효제문자도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8) 임동환, 「한글을 활용한 효제문자도 디자인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9) 전은자, 「제주도 효제문자도 연구」, 탐라문화 36권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10) 양순영, 「강원지역의 효제문자도를 활용한 패턴 디자인 개발」, 한국디자인포럼 61권 0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8.

11) 장현주, 장애란, 「문화원형을 활용한 패션상품개발을 위한 조형성 분석·민화 효제문자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38권 0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3.

直節)의 관용방의 고사내용이 나온다고 했다. 안미화, 장애란는 「제주도 효제문자도를 응용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및 아동복디자인개발- <치>자 중심으로」¹²⁾에서 “충(忠)”은 용, 잉어, 대나무, 새우, 대합, 거북이를 그려 충성을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충(忠)”자를 검토 분석해 보니 기신광초(記信匡楚)고사와 용봉직절(龍逢直節)의 고사와 어변성룡의 용문협곡의 설화로 상징과 비유가 똑 같았다. 유교문자도 “충(忠)”자가 단독으로 심도 있게 연구되어진 부분이 없었다. 분명히 두 가지 양상으로 도상의 상징성이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똑 같았다. 대부분의 의미가 “어변성룡(魚變成龍)”에 나타난 도상의 상징성을 기원 또는 주군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해설하고, “새우[鰕]”를 중심으로 한 도상 역시 상징적 해설을 간략하게 대충 묶어 하나로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구분되어 있지 않는 상징적 도상을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고 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왜 “충(忠)”자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상의 상징물이 두 가지 양상으로 대체가 되었는지, 해석과 연구가 희박한 “충(忠)”자에 대해 두 가지 양상을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이 논고의 연구목적은 유교문자도 여덟 글자 중 “충(忠)”자의 도상의 상징성이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연구하고 지역적 특징을 밝혀 미술사적으로 의의가 있음을 찾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로는 조선 후기 문헌에 나타는 유구한 유교의 역사자료와 관련된 옛 문헌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동사강목, 한민족문화대백과, 고려인물열전 기타 등으로 조사하여 원문을 살펴 고 그에 대한 고증적인 역사적 사실을 바탕에 두어 제시하였다.

“충(忠)”자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고려해 볼 때 다른 미술에 비해 관례적인 부분이 농후하여 미술사학적으로 고문헌이나 사학으로는 일관된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실증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으로 현존하는 유교문자도를 직접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 “충(忠)”자가 나타난 도상들을 100점(표 1-1 참조)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는데 계명대학교 행소 박물관에서 5점을 살펴 조사하고,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3점을 분석하고, 경산시립 박물관을 열람하여 2점을 조사 촬영하였다. 유교문자도의 도록인 한국의 채색화에서 15점, 동양의 타이포그래피 문자도에서 177점, Understanding Chsaekhwa에서 17점, 책거리와 논문 수록의 도상에서 3점을 검토 분석 조사하였다. 도상 222점의 자료를 가지

12) 안미화, 장애란, 「제주도 효제문자도를 응용한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및 아동복디자인 개발-<치>자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53권0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6.

고 정리했다. 그 중 같은 도상이 중복되거나, 유교문자도의 여덟 자(字) 중 한자[一字]라도 빠져있거나, 병풍이 아닌 족자나 연구 자료로서 애매한 도상은 제외하고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가 모두 있는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도상 100점(표 1-1참조)을 선별하여 표본 조사하고 그 결과물의 상관관계를 수렴하여 추정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진행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제 1장 유교문자도의 여덟 덕목 중 “충(忠)”자의 도상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상징성이 지역적 특징과 관련이 있음을 분석하려 한다.

제 2장 조선 유교의 “충(忠)”사상 및 유교 문자도의 시작과 변천을 살펴보기 위하여 첫째로 조선 개국을 배경으로 한 유교의 정책과 그 후의 정책적 활동을 조사하고 조선 500년을 이끌어 온 군신관계의 “충(忠)”의 사상을 검토한다. 둘째로 유교문자도의 시작과 변천을 살피기 위해 문자도의 기원과 변천을 검토한다. 또한 조선의 핵심 사상인 “忠”사상이 19세기 향촌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서민들과 유교문자도의 시발점(始發點)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하려한다.

제 3장 유교문자도 “忠”자에 나타난 주요 도상인 용·새우의 지역적 성향을 논하기 위해 지방의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고 용의 기원과 상징, 새우의 상징을 지역적으로 살핀다. 또한 지역적으로 나타난 양상을 비교 설명 하여 서술한다.

유교문자도 “충(忠)”자에는 두 개의 양상이 있다. 하나는 뿔을 곤(丨)자를 대신하는 대나무에 용이 감싸는 양상과 또 다른 하나는 뿔을 곤(丨)자에 큰 새우가 감싸는 양상이 있다. 용은 예로부터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용의 의미와 서울 및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용의 의미를 살피고, 새우의 상징성의 의미를 살펴 추정하고자 한다.

제 4장 문자도의 개념과 유교사상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비교 검토하여 지방의 특색 및 인문환경을 바탕으로 한 민속자료, 종교, 사상, 시대적 배경을 살펴 그에 대한 실제적인 사료들을 근거로 두고, 유교문자도의 “충(忠)”에 나타난 용·새우의 양상을 서울·경기 및 강원도 문자도에 나타난 양상과 경상도 및 전라도 문자도에 나타난 양상 그리고 제주도 문자도에 나타난 양상을 서술한다.

필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유교문자도의 시기는 지방의 지리적 특징과 유교문자도의 지방색이 뚜렷이 나타나는 시기로 초기의 도상과는 달리 화면에 고사의 내용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두고 표현하였기에 무엇보다도 상징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중요하다.

따라서 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역적인 특징을 논하고 문자도의 비교 가능한 실물들을 바탕으로 차이점을 서술하고 비교하며 개인적인 관점의 타당성을 밝히고 미술사학적으로 의의가 있음을 찾고자 한다.

II. 연구배경

1. 유교문자도의 시작과 변천

유교문자도는 다른 민화와 달리 조선의 유교정책인 향약과 더불어 서원, 서당과 관련이 깊다. 16세기 이후 촌락 단위로 조직된 향약은 사회교화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민간조직으로서 주자(朱子)의 유교를 중심으로 한다.¹³⁾

따라서 이 장에서는 향촌 중심으로 한 서민들의 무의식속에 싹튼 유교사상이 유교문자도에 미친 시작과 변천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1 문자도의 기원과 변천

유교문자도는 민화의 일부이다. 민화의 기원을 보면 세화(歲畵)와 문배(門排)의 고대 민간의 벽사문첩(辟邪門帖)에서 시작되었다. 세화란 새해를 맞이하여 송축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고, 문배는 새해를 맞이하여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그림을 그려 대문에 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벽사의 의미가 강하게 내재되어있다. 그 원형은 중국 남송시대의 주희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어 조선에 도입된 후 18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면서 민화와 결합되어 19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백성들에게 온전히 정착이 되었다.

민화는 문자 그대로 백성이 그린 그림으로서 서민의 그림이다. 즉 민화는 서민이 서민들의 입맛에 따라 그려진 그림, 그러한 풍, 그 시대의 기법이나 화풍이 아닌 유행이 아닌 정형화가 되어 신분의 계층을 나누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백성의 감정과 정서가 들어간 우리만의 소통과 색깔이 있는 그림이다. 서민들의 소망과 기원 그리고 생활의 필요성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진 민화는 동양화의 기법이나 화법이 수학공식처럼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다. 예를 들면 <호작도> 하나만 보아도 궁중 도화원이 <호작도>의 호랑이를 그릴 때는 터럭하나라도 실제의 호랑이 털처럼 하나하나 섬세하게 사실 그대로 묘사해 가지만 민화를 그리는 무명작가는 현실의 호랑이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풍자 또는 경제적 풍자, 사랑... 여러 가지로 상징화 하고, 그들만의 눈으로 단순화시키고, 우스꽝스럽게 또는 천하의 호랑이를 바보스럽게도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화는 자유롭고 형식에 매어있지 않다. 글의 종류로 비유하면 수필이라고 할 수 있다.

민화라는 언어의 개념은 인생의 굴곡이 많은 영국 출신의 정치인(영국 자유당)이면서 사회 운동가이자, 그림(회화), 시, 공예가, 디자이너, 사상가, 건축가로 알려진 19세기 윌리

13) 관리리, 「16~19세기의 韓中 鄉約에 대한 比較 研究」,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p. 3.

엄 모리스 [William Morris] (1834~3. 24. ~ 1896. 10. 3.)에 의해 그가 사용하던 the art of the people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나라 미의식을 애상의 정서, 즉 슬픔의 정서라고 폄하했던 일본인 미술 평론가 야나기 무네요시(1889~1961)가 민화를 보고 극찬을 하면서 처음 시작 된 말이다. 이는 우리나라 민화가 까다로운 일본 민예 운동가이자 미술 평론가인 야나기 무네요시의 지각(知覺)을 바꾸어 놓고 또한 우리나라 미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민예’라는 단어에서 그림 ‘화(畵)’를 넣어 민화라고 불렀다.

‘민예’라고 하면 일본의 야나기 무네요시를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 말은 18세기 독일의 “Volk Kunst”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를 영어로 “folk art” 혹은 “the art of the people”로 번역하고, 일본에서 “민중예술”, 중국에서는 “민간예술”로 번역했다. 요즘 말로 풀면 “대중예술”이 된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가 말한 “the art of the people”에서 “민중적 공예”로 살짝 바꾸고, 이를 줄여서 “민예”라고 불렀다. 또한 민예 가운데 회화는 민중회화, 즉 민화라고 했다. ¹⁴⁾

이것을 1960년대 조자용을 비롯한 미술사학자들이 야나기 무네요시의 민화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민화 연구가 김호연은 민화를 “겨레의 그림”이라고 불렀고, 조자용은 한민족의 그림, 즉 “한민화”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최근에는 민화를 “궁중 화원이 몰래 판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궁중화원이나 화승이 그린 그림”이라고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민화의 본질이 아니다. 민화가 궁중회화나 불화에 영향을 받은 그 냥 교류관계를 말한 것이다. 민화는 민화일 뿐이다.”¹⁵⁾

민화 가운데 문자도는 중국 고대부터 있었으나 명나라 말기부터 청나라 초기에 그림에 한자가 차용되어 장식화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선 직접적인 문자도의 문헌으로는 광해군일기의 기에 의하면 남평현감 조유한(趙維韓)이 명나라에서 백수도(百壽圖)문자도 가져와 임금께 진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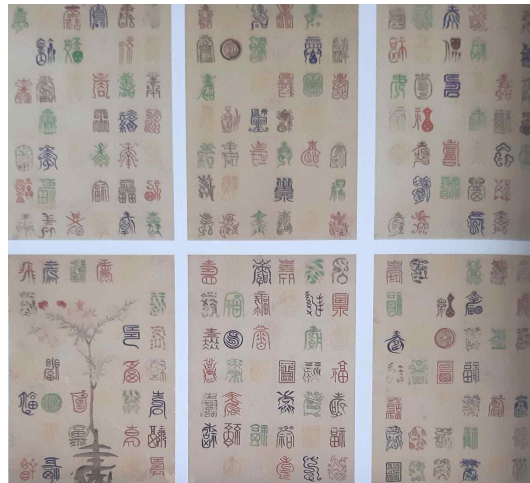
“.....중국의 장관 한 사람이 신에게 백수도 한 폭을 주었는데, 신은 고인들의 문자 제작의 신기함에 감탄하고, 백수도의 정교한 구성을 감상하였었습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새로 보위에 오르셨고 탄신일도 임박하였으니, 무궁토록 튼튼한 기초를 열고, 천년 장수를 다지는 것이 바로 오늘에 달렸습니다. “ 하여 답하기를, “ 상소와 그림을 살펴보니, 충성심이 매우 강상하여 곁에다 두고서 항상 살펴보겠다.”하고, 마장(馬粧) 한 부를 하사하였다.“ ¹⁶⁾

14) 정병모, Social Network Service, 2018.

15) 정병모, 「민화, 누구를 위한 그림인가?」, Social Network Service, 2018.

16) 『광해군일기』 28권, 광해군 2년 4월 16일 (신묘)

“臣昔在癸巳年冬，猥忝講官，叨侍書筵。當鶴駕〔進駐全州也，有一天朝將官，遣臣以百壽圖一幅，臣歎古人制字之奇玩，一圖構思之巧矣。今我殿下，”



<그림2> 백수백복도, 8폭병풍,지본채색,34×50cm
경산시립박물관소장

백수도의 글자를 보면 복(福)과 수(壽)자가 여러 모양으로 도상되어 있다.(그림 1) 이는 복(福)과 무병장수(無病長壽)를 비는 기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글씨체를 전서체라 하는데 전서체는 중국에서부터 수용되었다.

서체는 고대 창힐이 새의 발자국을 보고 처음 글자를 만들어 신농씨(神農氏)의 수서(穗書), 황제씨(黃帝氏)의 운서(雲書), 전옥씨(顓頊氏)의 과두문자(蝌蚪文字), 무광(務光)의 해서(薤書), 봉서, 구서, 용서, 주나라 시대에 매씨의 분서, 백씨의 흘기문(笏記文) 등 여러 글씨체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16세기 까지는 백수도처럼 작은 글씨의 집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38서체가 확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38서체는 1663년 현종4년에 간행된 송시열의 서문에 있는 것을 발췌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서체가 다양했음을 <표2>에서 보여준다.

<표 2> 38書體의 전거(典據)와 풀이

번호	서 체	전 거	전 거 풀 이
1	조전(鳥篆)	史佚回赤雀丹鳥二作	史佚이 赤雀과 丹鳥의 두 가지를 본떠서 만듦
2	상방대전(上方大篆)	程邈飾李斯出法	程邈이 李斯의 서체를 수식해서 만듦
3	구서(龜書)	見龜而作	거북이를 보고 만듦, 귀서
4	수서(穗書)	神農回上黨生嘉禾而作	神農이 上黨에 嘉禾가 난 것을 본떠서 만듦
5	기자전(奇字篆)	甄豐定古文六體此其一	甄豐이 古文의 六體를 정한 것 중의 하나임
6	지영전(芝英篆)	陳遵回芝生漢武殿作	陳遵이 한무제의 궁전에 지초가 난 것을 본떠 만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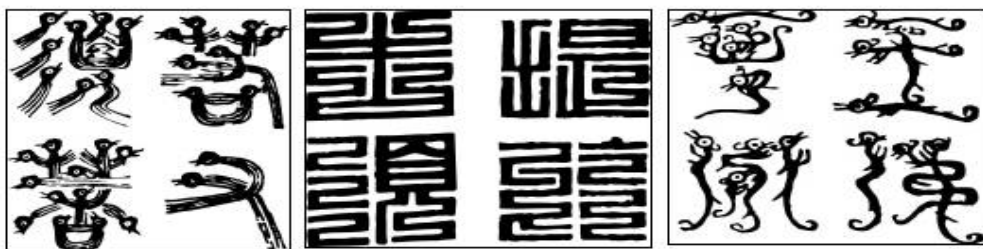
7	벽락전(碧落篆)	唐元嘉子李譔作	唐나라 韓王 元嘉子 李譔이 만듦
8	대전(大篆)	史籀變古文六體著書五篇	史籀가 古문의 6체를 변조하여 15편의 글을 씀
9	비백서(飛白書)	蔡邕見人以帚成字作	蔡邕이 어떤 사람이 빗자루로 글자를 쓰는 것을 보고 만듦
10	과두서(科斗書)	源出古文或云顓頊製	막대기에 칠을 하여 씀, 올챙이 글이라고도 함
11	금착서(金錯書)	韋誕作古錢名漢之鉄兩	韋誕이 古錢을 만들어 漢의 鉄兩으로 사용
12	조적서(鳥跡書)	蒼頡觀鳥跡始製文字	蒼頡이 새의 발자국을 보고 처음으로 글자를 만듦
13	고전(古篆)	似柳葉體細	柳葉體와 흡사하나 더 가늘다
14	유엽전(柳葉篆)	衛瓘三世功書善衆體	衛瓘이 3대에 걸쳐 글씨를 연구하였는데 여러 서체를 잘 씀
15	수서(殳書)	기록없음	·
16	현철서(懸鉞書)	기록없음	·
17	전숙전(轉宿篆)	熒惑退舍司星子韋作	熒惑이 退舍하여 司星子韋가 만듦
18	옥근전(玉筋篆)	陽冰善作	陽冰善이 만듦
19	도해전(倒薤篆)	仙人務光見薤偃風作	仙人인 務光이 薤草가 바람에 누운 것을 보고 만듦
20	인서(麟書)	獲麟弟子爲素王紀瑞作	麒麟을 잡은 弟子가 素王을 위해 상서로움을 표하기 위해 만듦
21	중정서(鍾鼎書)	三代以此體刻銘鍾鼎	夏殷周 3대에 걸쳐 종과 술에 새긴 서체
22	용서(龍書)	太昊獲景龍之瑞作此	太昊 복희씨가 景龍의 상서로움을 바탕으로 만듦
23	혹두서(鵠頭書)	漢家尺一之簡如鵠首	漢家尺一이 고니의 목을 본떠 만듦
24	정소전(鼎小篆)	似古鼎體而細	古鼎書와 비슷하나 더 가늘.
25	진새전(秦璽篆)	程邈作	程邈이 만듦
26	고정서(古鼎書)	似鍾鼎體而細	鍾鼎體와 비슷하나 더 가늘
27	현침전(懸針篆)	曹喜以此題五經篇目	曹喜가 이 서체로 五經의 篇目을 썼음
28	봉미서(鳳尾書)	鳳鳥適至而作	鳳鳥가 때마침 날아와서 만듦
29	용조전(龍爪篆)	羲之見飛龍爪形作	왕희지가 飛자를 보고 龍의 발톱을 형상화하여 만듦
30	수운서(垂雲書)	黃帝回慶雲之見而作	黃帝가 경사스러운 구름을 본떠 만듦
31	각부서(刻符書)	秦壤古文定八體此其	秦壤이 古문의 8체를 정했는데 그 중의 하나임

32	전도전(剪刀篆)	韋誕作後史游造其極	韋誕이 만든 후에 史游가 최종적으로 만듦
33	소전(小篆)	胡毋敬作比籀篆頗改省	胡毋敬이 籀篆을 고쳐 만듦
34	수로전(垂露篆)	曹喜作點若濃露之垂	曹喜가 만든 것으로 점이 마치 濃露가 떨어지는 것 같음
35	영락전(纓絡篆)	劉德昇夜觀星宿爲此	劉德昇이 밤중에 별자리를 보고 만듦
36	태극전(太極篆)	象太極圖	太極를 본떠서 형상화한 것
37	분서(墳書)	周媒氏配合界女書證文	周나라 媒씨가 界女를 배합하여 證文을 썼는 것
38	조충전(雕蟲篆)	魯秋胡妻春 扈翫作	魯나라 秋胡의 妻가 春扈에서 누에를 보고 만듦

<표 2>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대한 <그림 2>¹⁷⁾와 <그림3>¹⁸⁾의 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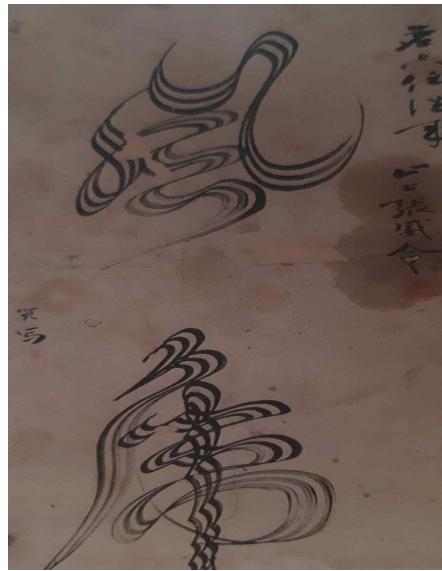
<그림 3> 38체 - 1. 鳥篆, 38체 - 2. 上方大篆, 38체-22. 龍書



<그림 4> 38체-9. 飛白書, 38체-20. 麟書, 38체-3. 龜書

17) 윤열수, 「문자도를 통해 본 민화의 지역적특성과 작가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 25.

18) 유열수, 위의 논문, p. 25.



<그림4> 비백혁화, 지본수묵,
34×37cm 개인 소장

이러한 글씨체는 18세기 오면서 완전히 문화적으로 흡수되어 한자(漢字)의 날자 한 자가 글씨의 정형화보다는 그림으로 가깝게 되어 과정으로 되어간다. 정조 때의 실학자인 유득공(柳得恭)이 기록한 한양세시 경도잡지(京都雜誌) 제1권 풍속 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비백서가 있다. 버드나무 가지를 깎아 그 끝을 갈라지게 하고 먹을 찍어 효제, 충신, 예의, 염치 등의 글자를 쓴다. 점찍고, 긋고, 파임하고, 빼치는 것을 마음대로 하여 물고기, 게, 새우, 제비 등의 모양으로 만든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유교문자도가 비백서로 그려져 글씨뿐만 아니라, 서체가 그림의 장식화가 됨을 알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자도는 초기의 교훈과 유교의 이념사상보다는 장식의 의미로 더욱더 가속화 되었다. 민화의 특징인 단순함과 자유로움이 유교문자도에서 나타나 서체 자체가 무슨 글씨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추상화 되었다.

2.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서민들의 유교문화

조선이 개국과 동시에 유교적 이념을 모토로 삼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고려국가가 귀족정책과 더불어 오랫동안 서민사상으로 뿌리박힌 천년의 불교를 없앤다는 것으로 불가능한 일이다.¹⁹⁾

유학이 한반도에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로 이어왔지만 서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고구려 시대의 소수림왕 동사강목 학관 연혁²⁰⁾에 보면 고구려 시대 사람들은 경당(扃堂)이라 하여 유교 경전을 외우고 익혔다.²¹⁾ 하지만 동사강목 제 2하에 보면 “고구려가 나라를 세운지 4백여 년 만에 처음으로 태학을 세웠으니, 어찌 그리 학교를 세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늦었는가? 지금 왕은 비록 보람 있는 일을 할 만한 자질이나, 중을 받들고 절을 지어서 고구려에서 부처를 믿는 첫 임금이 되어 자손들이 그 허물됨을 본받아서 그 양화(殃禍)가 널리 퍼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²²⁾라고 되어 있다. 천년 이상의 불교문화와 토속신앙과 도교의 영향으로 백성들의 유교화는 결코 쉽지 만은 않았다. 왜냐하면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불교는 단순진리와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호국불교로서 독창적으로 승화되어 왔기 때문이다.²³⁾ 개국 초기 관료들은 고려의 중심사상인 불교가 많은 토지와 노비를 비롯해 고리대금업까지 행하는 등,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불교의 비현실적인 부분과 부정부패를 비판하였다²⁴⁾. 따라서 성리학의 소박하고, 윤리적이며 현실 합리적인 정신이 새로운 지표로서 환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²⁵⁾

이러한 유교사상의 학통을 살펴보면 정몽주에서 길재, 길재의 제자였던 김숙자, 김숙자의 아들인 김종직, 김종직의 제자 김굉필, 정여창, 김일손, 정여창과 김굉필의 제자 이인직, 조광조, 김안국, 조광조의 제자인 조식, 이황, 이이, 성혼이다. 정몽주를 시작으로 하여 김종직은 김굉필에게 소학의 공부와 주가가례를 실천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성리학적 규범을 사회적으로까지 추진하였다. 조선의 성리학은 소학으로 그 생활 규범과 유학의 도를 닦았다. 김종직의 학문경향은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을 주된 안목으로 하여 치중하고 가르치며 계승하였다.²⁶⁾ 그의 제자 김굉필은 조광조에게 소학과 근사록을 학문의 토대로 삼을 정도로 영향을 주었으며²⁷⁾, 그 후 16세기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유교의 찬란한 꽃을 필을 수 있었던 토대가 된다.

서민들이 유교 문화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황, 이이가 활동 했던 16~17세기를 거쳐 유교적 이해가 깊게 되고, 조선의 풍속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이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이

19) 이규정, 「조선 초기 관료들의 성리학적 정치이념과 함허선사의 『현정론』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 9.

20) 안정복, 『동사강목 도하/관직 연혁도(官職沿革圖)』, “소수림왕(小獸林王) 2년에 태학(太學)을 세우고 국자박사(國子博士)를 두었다 고구려가 처음으로 태학(太學)을 설립했다.”

21) 최씨, 『신당서(新唐書)에서 보충』 “큰 길거리 옆에는 어디나 큰 집[嚴屋]을 지어 경당(扃堂)이라 불렀다.”

22) 소수림왕(고구려, 2년), 『동사강목, 제2하』, 임신년 신라 내물왕 17년.

퇴계집, “(東史)高句麗小獸林王二年。秦王苻堅遣使。送胡僧順道及佛像佛經。又百濟近仇首王九年。胡僧摩羅難陀。自晉至。東國之有佛教始此”

23) 이규정, 앞의 논문, p. 1.

24) 위의 논문, p. 15.

25) 위의 논문, p. 9.

26) 현상윤, 『조선유학사』, 현음사, 2003. p. 62.

27) 위의 책, p. 79.

다.²⁸⁾ 이렇게 유교적 이해가 깊게 될 수 있었던 수단이 향약과 서당, 서원이다.

“향약의 개념은 민간기층조직이며 사회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리리가 말했다.

조선왕조에 소개된 향약은 주희가 보정하여 제정한 「증손여씨향약」이다. 향약은 <소학>교육과 함께 <가례>등 실천적 유교적 향촌 윤리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 16세기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에 이르러 조선적 향약이 제정되어 조선말기까지 조선사회의 인위적인 체계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²⁹⁾

조선 향약의 사전(事典)과 같은 구실은 한 퇴계향약은 예안현에 실시하고자 했다하여 <예안 향약>이라고도 한다. 조선 향약의 반석이기도 하다.

이황의 제자 김기는 이황의 향약을 계승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퇴계선생의 향약을 오로지 사용하였다. 기타吉凶相助와 患難相救,春秋의 講信은 우리나라 인민의 풍속에 통행되던 것이다…… (향약을 제정한)본뜻은 人心을 바르게 하고 風教를 두터이 하고자 함이다.”³⁰⁾

김기의 향약의 덕목은 효(孝), 제(悌), 신(信), 으로 요약 할 수 있다.³¹⁾

향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율진 향약의 12개 조의 내용)³²⁾

1. 불효하거나 형제간 공경하지 않으며 남편을 섬기는데 공손하지 않는 자
(不孝不悌不謹事夫者)
2. 젊은이가 어른을 능멸하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능멸한 자
(以少凌長以賤凌貴者)
3. 조상의 제사를 잘 받들지 않고 음사를 행하기를 좋아하는 자
(不謹奉先好行淫祀者)
4. 친척 간에 서로 화목하지 않는 자
(親戚之間不相和睦者)
5. 이웃 간에 서로 애호하지 않는 자
(鄰里之間不相愛護者)
6. 헛소문을 만들어 내어 사람을 죄과에 빠트리는 자
(做出浮言陷人罪過者)
7. 비리로 송사하기를 좋아하여 서로 빼앗기에 힘쓰는 자
(非理好訟務相爭奪者)
8. 관의 차출을 빙자하여 사리를 도모하여 백성을 소란스럽게 한 자

28) 정진영, 「향약, 퇴계가 꿈꾼 이상사회」, 안동학연구12, 2013, pp. 57~58.

29) 판리리, 「16~19세기의 韓中 鄉約에 대한 比較 研究」,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p. 13.

30) 金圻, 『北厓集』 권 2, 「鄉約」.

31) 곽진주, 「향약의 지역공동체 평생 교육적 분석」,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p. 42.

32) 오세창외, 『嶺南鄉約資料集成』,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6, pp. 18~19.

- (憑藉官差營私擾民者)
9. 양반을 끼고 하천들을 침학하는 자
(脅持兩班侵轢下賤者)
10. 조세 납부에 힘쓰지 않고 요역을 면하기를 도모하는 자
(不謹租賦圖免徭役者)
11. 큰 소리로 싸우고 욕하며 서로 다투는 자
(喧爭罵言互相鬪詰者)
12. 집강의 말을 따르지 않고 거리낌 없이 방자한 자
(不有執綱縱恣無忌者)

위의 내용은 주로 가족이나 마을에서의 윤리강령으로 처벌이 있는 규제이며, 삼강오륜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덕업상권이다. 향약의 덕목인 덕업상권(德業相勸)은 유교사상의 이념을 나타내고, 과실상규(過失相規)는 사회이념을 나타내며, 예속상교(禮俗相交)는 윤리이념을 나타내고, 환난상휼(患難相恤)은 정치와 경제의 이념을 나타낸다. 다른 지방도 향약의 4대 덕목에 준하여 제정되어 거의 비슷하며 엄격하였다고 한다.

이이는 이황과 같은 향약을 서원향약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향약은 오래된 것이다. 한 고을 사람들이 보살피고 돌아보아 서로 돕고, 질병에서 서로 구해주고, 출입함에 서로 돌보는 것이다. 또 자제(子弟)로 하여금 가숙(家塾)와 당상(黨庠)과 주서(州序:마을학교)에서 효제(孝悌)의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3대지치(3代至治)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함에 진실로 그 목적이 있다.”³³⁾

이이는 향약을 서원과 긴밀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서원향약의 경우, 나이 30세 이하인 사람으로 글도 배우지 않고 무예도 연마하지 않는 경우에 허물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모두 소학·효경·동자습 등의 글을 읽게 하며, 읽지 않는 자는 벌줄 것을 논하고 있다”³⁴⁾ 향약 서원은 덕망이 있는 사람이 소학교육을 잘 가르쳤고, 선비를 두어 교육을 담당하게 했다고 한다.

향약과 더불어 유교 문화는 숙종(肅宗, 1674~1720)재위 기간 동안 유교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전국에 많은 서원을 건립되었고³⁵⁾, 그 결과로 향교, 서당을 위주로 고유한 향촌을 통하여 더욱더 엄격하게 지켜졌고, 양반들의 전유물인 주자가례(朱子家禮)가 하층민들까지 내려왔다. ³⁶⁾

이러한 시대적 경향으로 사대부인 양반층은 주로 병풍에 글, 그림, 글씨 등을 나타내 가문의 명성을 높였고, 서민들은 조선의 정부의 교화적 목적과 조상을 섬기면 복을 받는

33) 송양섭, 『조선시대 향약에 관한 사회교육적 고찰: 율곡 이이의 향약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4권, 1995, p. 58. 율곡전서, 16권 참조.

34) 앞의 논문, 2008, p. 39.

35) 안호숙, 「조선후기 민화(民畵)에 나타난 미의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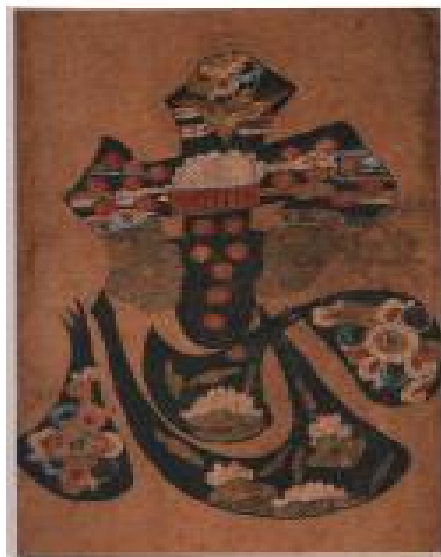
36) 김종석, 「안동유학의 형성과정과 특징」, 『안동, 안동문화, 안동학』, 한국국학진흥원, 2012, pp. 113~233.

다는 기복신앙으로 병풍을 사용했다.³⁷⁾ 다시 말하면 양반들은 제사나 다른 의례를 지낼 때는 유교문자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서민들이 조상에 대하여 제사를 지낼 때 쓴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사는 복을 비는 의례로서 길례(吉禮)³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교문자도는 민가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말기로 오면서 민간까지 전해지고, 자녀 교육을 위해 소학을 병풍으로 만들어 아동의 방에 두고, 선비들은 학문 정진을 위해 곁에 두었다. 유교문자도는 소학의 일부로서 아동의 방이나 선비들의 책방 뒤에 둘러 쳐졌으며, 교훈과 교육을 위해 쓰이기 시작했다.

3. 19세기 서민들에게 나타난 유교문자도

서민문화는 16~17세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18세기에서 19세기 성숙된다. 이 시기의 유교문자도의 원형을 보면 <충>자 안에 삼국지의 기신광초(紀信騰楚) 고사가 실려 있다. (그림 5) 내용을 보면 “충(忠)” 자획 중 <中>자의 중심엔 말을 타고 칼과 창을 든 기신이 보이고, 기신의 왼쪽에는 병사와 깃발, 성문이, 오른쪽에는 소나무와 칼을 든 병사와 초나라에 대하여 지략을 펼치는 기신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 6> 문자도충, 지본채색,
69×39cm, 선문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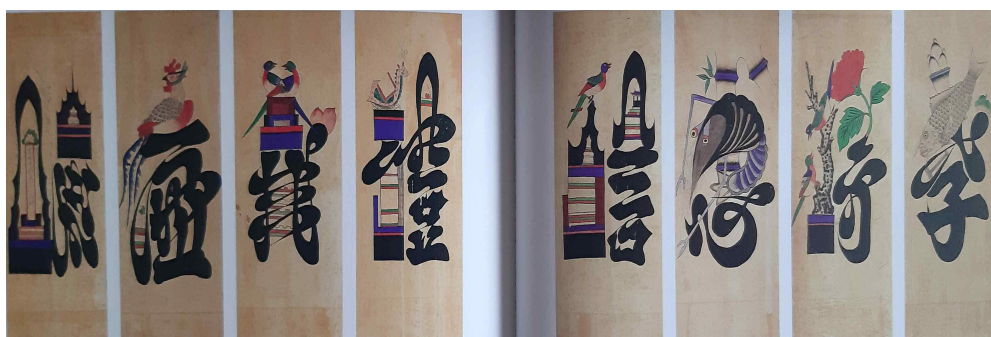
37) 김덕균, 「효의 관점에서 바라본 선진우가의 사생관과 제사의식의 실제」, 『민속학술자료총서』, 574, 예죽제 제사10』, 우리마당터, 2004, p. 87.

38) 임돈희, 『조상제례』, 대원사, 2004, p. 8.

그 아래에는 학이 불로초를 입에 물고 있다.³⁹⁾ <心>자에는 충신 기신의 의해 한나라 영양왕이 구출되어 기신과 만나는 장면이 있고 그 양옆에는 송학, 화손학, 서기를 뽑는 운귀(雲龜)의 모양이 있다.⁴⁰⁾ 고사내용의 앞부분과 후반부를 담아 정밀하게 표현하였다.

이렇게 고사나, 인물을 넣어 상징적으로 그려서 문자를 이해하며, 내용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유교문자도의 시초이다. 이러한 문자는 점차적으로 “충(忠)”자의 원형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의 원형이 조선 말기로 접어들면서 정형화가 무시되고 길상, 기복 신앙의 상징성으로 추상적으로 변모했고, 글자 안의 내용 대신 문자와 관련된 상징물이 대체되어 단순화 되었다.

아래의 (그림 6) 을 보면 여덟 자 모두가 초기의 도상과는 달리 상징물이 글자 밖으로 나와 글자를 대신하고 있다. 내용에는 ‘치’자에 제사를 올리는 사당이 보이고, ‘치’자 위에 위패를 걸어 놓은 모습과 ‘백세청풍 이세지비(百世淸風 夷齊之碑)’라는 지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선비의 굳은 절개를 의미한다. “충(忠)”자를 보면 용 대신에 큰 새우가 놓여 있으며, 조개나 잉어가 없다. 이러한 이유는 이 시기부터 지방의 특색이 나타나며 민화의 회화적인 부분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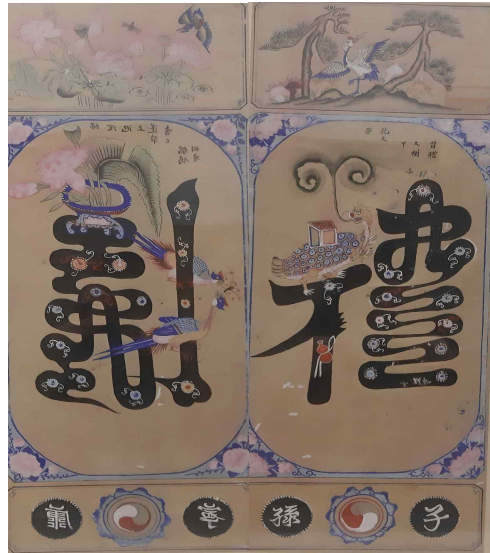
<그림 7> 유교문자도, 8폭 병풍, 지본채색, 38.6×102cm 경산시립박물관

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마지막 단계로 (그림 7)을 보면 초기의 작품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구분이 어려울 만큼 초서체에 가까운 글씨체로 휘날리게 표현했다.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19~20세기 초의 작품으로 교훈이나 교육보단 장식적이고 회화적인 부분이 더 강하고, 정형적인 양식이나 규칙, 문자까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졌다.

39) 김성찬, 「민화『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의 의미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정보디자인학회 2015, p.32.

40) 김성찬, 앞의 논문, p. 32.



<그림 7> 문자도, 2폭죽자, 35×98cm,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상징적인 내용면에서 여덟 가지 덕목인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엄(廉), 치(恥)의 고사내용과 중심소재의 의미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유교문자도의 고사의 내용과 상징과 의미

문자	고 사 내 용	상징	중심소재	의 미
효 (孝)	①맹종읍죽(孟宗泣竹): 오(吳)나라시대의 가난한 선비인 맹종이 어머니가 죽순을 먹어야 살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대죽 밭으로 갔으나, 계절이 겨울인지라, 죽순을 찾을 수 없어 온종일 울고 있을 때 맹종이 울던 자리에 죽순이 솟아나와 그것으로 어머니를 살렸다는 고사	효 도	대나무, 죽순, 맹종, 맹종의 어머니	‘효’는 하늘도 감동시켜 소원과 염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
효 (孝)	②왕상빙리 ⁴¹⁾ : 진나라 ‘왕상’에게 모질게 대하	효 도	잉어, 계모, 왕상	‘효’는 하늘도 감동시켜 소원과

	는 계모가 한 겨울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니, 왕상이 뽕뽕 언 강물에서 근심하여 하늘이 감동하여 얼음이 깨지고 잉어 두 마리가 튀어 올라 그것으로 효도했다는 이야기			염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
효 (孝)	③황향침선(黃香枕扇): 후한시대에 ‘황향’은 여름에 아버지가 더울까봐 침상과 베게에 부채질하여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아버지가 추울까봐 이부자리 속을 먼저 들어가 따뜻이 데워놓는다는 아버지의 섬김에 효도를 다하는 이야기	효 도	황향, 베게, 부채,	‘효’는 하늘도 감동시켜 소원과 염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
효 (孝)	④륙(육)적 회굴(陸績懷橘): 후한시대의 육적이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술’로부터 받은 귤을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려고 가슴에 품고 하직 인사를 드리다가 귤이 바닥으로 떨어진 이야기	효 도	귤, 육적, 원술	‘효’는 하늘도 감동시켜 소원과 염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
효 (孝)	⑤대순탄금(大舜彈琴): 착한 ‘순’을 계모와 이복동생이 두 번이나 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순은 분노나 원망 없이 태연스럽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거문고를 탔다는 이야기	효 도	거문고, 순임금, 계모, 이복동생	‘효’는 하늘도 감동시켜 소원과 염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
제 (悌)	할미새는 시끄럽게 우는 ‘새’로서 형제간에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것을 뜻하고, 산 앵두나무는 꽃가지가 길게 어울려있어 형제간의 화목과 화합을 뜻한다.	형 제 간 의우애	할미새, 산 앵두나무	유교문자도에서의 ‘제’자는 ‘공경하다’라는 뜻이 아닌 ‘시경’에 나오는 뜻으로 형제간의 우애를 의미한다.
충	①어변성룡(魚變成龍)	충성	잉어, 용	잉어가

(忠)	잉어가 등용문에 이르러 용이 되 듯이 출세하여 관직에 나아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용문협곡에서 튀어 올라 용이 되듯이 출세하여 관직에 나아가 임금께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
충 (忠)	②하합상하(蝦蛤相賀): 새우와 조개는 절개와 지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임금에게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한다는 것	충성	새우, 대나무, 조개	선비로서 굳은 절개와 지조로 나라와 왕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
신 (信)	매화와 파랑새: 파랑새는 ‘한무고사(漢武故事)’에 나오는 신조(神鳥)로서 서왕모의 말을 알려 주는 사자(使者)를 나타낸다.	언약, 믿음	파랑새, 복숭아, 매화	파랑새가 나타나면 서왕모가 온다는 언약과 믿음을 의미함
예 (禮)	하도낙서(河圖洛書)의 신구(神龜): 책을 지고 있는 거북용	예법	신구(神龜)	오래도록 책을 본다는 의미로서 문서 절문의 의미.
의 (義)	도원결의(桃園結義)의 복숭아꽃: 삼국지의 유비, 관운, 장비가 복숭아 꽃 밑에서 결의를 맺었다는 내용이며, 물 수리새는 상호화합의 내용이다. ⁴²⁾	의리	복숭아 꽃, 물 수리새	유비, 관운, 장비처럼 복숭아 꽃 아래에서 결의 맺는 것처럼 서로 화합하여 ‘의’를 다하라는 의미
엄 (廉)	①출처지리(出處之理)의 게: 게의 습성처럼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알아 인간이 지녀야 도리를 나타냄	청렴, 절제	게	게가 먹이를 찾을 때 전진, 후진을 반복하는 것처럼 인간도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
엄 (廉)	②‘울림극석’율리송국(栗里松菊)의 소나무와 국화꽃: 육적이 관직을 마치고 빈손으로	청렴, 절제	울림극석, 배, 육적	관직에 있어 퇴직을 하여도 ‘육적’처럼 청렴하게 행

	로 배에 오를 때 배가 뒤집힐 까봐 배에 실은 돌을 ‘울림극 석’이라한다.			해야 함을 의미
치 (恥)	백이와 숙제: 백이와 숙제 형제가 ‘은’이 망 하고 ‘주’가 세워 진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수양산에 들어가 숨어서 고사리를 먹고 살다가 굶어 죽었다는 내용, 월상도(月 像圖), 매화는 백이, 숙제의 절 개를 나타내기도 함.	부끄러 움	수양산, 백이, 숙제, 달, 매화	행동함에 있어 자신을 돌이켜보고 부끄러움을 알라는 의미

19세기에 나타난 유교문자도는 유교의 상징적 의미를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서민들에게 교훈과 생활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왔다.

Ⅲ. 유교문자도 “충(忠)”자에 나타난 사상과 특징

유교문자도 “충(忠)”자에는 두 개의 양상이 있다. 하나는 뿔을 곤(丨)자를 대신하는 대나무에 용이 감싸는 양상과 또 다른 하나는 뿔을 곤(丨)자에 큰 새우가 감싸는 양상이 있다. 용은 예로부터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용의 의미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용의 의미를 살피고, 새우의 상징성이 유교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살피고자 한다.

1. 조선 유교의 “忠”사상

충(忠)”자는 갑골문자에 보이지 않는 회의 문자로서 ‘中’과 ‘心’으로 이루어져 있다.⁴³⁾ 즉 마음에 중심을 쏘고 흔들리지 않으며, 효경(孝經)에도 나와 있듯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이런 말이 있다. “충(忠)은 공경함이요, 심(心)은 뜻을 따르고, 중(中)은 소리이다.”⁴⁴⁾ 동양의 “충(忠)”사상은 서양의 “충(忠)”사상과

41) 『三國志 吳書』 卷48, 『三嗣主傳 孫皓 晉書』 卷33, 王祥列傳.

42) 이익(李瀾, 1681~1763), 『성호사설』 제21권, 경사문, 고조·소열의 기사문.

43) 李炳官, 「形音義字典下」, 대경출판사, 2003, p. 908.

44) 서민자, 「조선후기 효제문자도에 반영된 孝·忠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p. 36.

다르다. 서양의 “충(忠)”사상은 절대자에게 절대 복종을 나타내지만 동양의 “충(忠)”사상은 외부의 강요없이 타율적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행위다. 즉 공자의 ‘인(仁)’에 해당하는 도(道)를 나타낸다.

따라서 “충(忠)”사상은 허위와 위선이 없는 성실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다. 그다음이 군주를 비롯해 타인이나 모두에게 자신에게 대(對)하듯 그 대(對)함이 흔들림 없는 자세로서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민자는 “충(忠)”이 대상에 따라 효(孝)·제(悌)·충(忠)이 된다고 했다. 즉 “충(忠)”이 부모를 만나면 효(孝)가 되고, 형제나 어른을 만나면 제(悌)가 되며, 임금을 만나면 충(忠)이 된다고 했다.⁴⁵⁾

조선의 “충(忠)”사상은 좌전(左傳)에도 나와 있듯이 공익을 위해 자신의 임무를 다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잊지 않는 것이다. 즉 임금을 대하는 것이 부모에게 대하듯 하고 나라와 임금에게 최선을 다하여 절의(節義)를 지킨다는 것이다.

“충(忠)”사상이 윤리적 덕목으로 굳어지게 된 것은 공자의 윤리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⁴⁶⁾ 유교의 기본 사상인 삼강의 군위신강(君爲臣綱), 오륜의 군신유의(君臣有義)에서 보듯이 삼강오륜에 유교의 근본적인 덕목으로 부모에 대한 효보다 먼저이고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왕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 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유교적 “충(忠)”사상은 조선시대의 정치와 사회문화 전반을 이끌어갔다.⁴⁷⁾

“충(忠)”사상은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는 힘이 되는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또한 전란이나 전란 후 국가가 피폐하고 어지러울 때 “충(忠)”사상과 관련이 된 작품이 많이 등장한다고 한다.⁴⁸⁾ 이러한 유교 윤리적인 “충(忠)”사상은 시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들의 생활도구인 유교문자도 까지 녹아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서민의 작품인 민화 중 유교문자도에 녹아진 “충(忠)”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자의 처음 원형에는 삼국지의 기신광초(紀信騰楚) 고사가 실려 있다. 충신 기신이 한나라의 영양왕을 구출하는 내용이다. 그 후 이규황이나 황승규, 이종하 작품의 고사 내용을 보면 중국 하나라 마지막 임금이 겉에 대한 고사 내용이 나온다. 겉은 포악하고 무자비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주색에 빠져 나라를 도탄으로 이끌어 갔다고 한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충직한 신하인 관용방이 다음과 같은 충언(忠言)을 하였다.

“임금이 겸손하고 공경하며 민음이 있고 절약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까닭에 천하가 편안하고, 사직과 종묘가 보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하께서는 재물을 끝없이 탕진하시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계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전하가 빨리 망하기를

45) 위의 논문, pp. 2~4

46) 이을조,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충효사상」, 국민윤리연구, 제 6호, 1977, pp. 107~108.

47) 엄주정, 「우리 나라의 전통적 忠孝思想」,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6. p.190.

48) 서민자, 「조선후기 효제문자도에 반영된 孝·忠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p. 44.

바라고 계십니다. “ 49) 라고 하였다.

임금은 관용방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직언(直言)을 하자 화가 나서 사형에 처했다고 한다.

위에서 보듯이 유교문자도의 “충(忠)”의 상징성은 중국의 고사로 이루어졌다. 이는 유교 문자도의 시작이 중국에서 유래되어 조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조선 말기의 유교문자도는 소학에 나온 유교 이념사상으로 조선 왕조와 유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착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 유교 문자도 “충(忠)”자에 나타난 특징

2.1. 지역적 특징

보통으로 지방의 특징은 지리적 자연환경에 의해 인문적인 환경이 결정되어 진다. 특히 농촌과 어촌은 생업 방식이 달라 그 차이가 상이하다. 농촌의 경우는 모내기나 김매기 등 한시적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만 어촌의 경우는 공동체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자연환경으로 인한 공동체적 유대 성격이 농촌에 비해 생업 위험률이 높기 때문이다.⁵⁰⁾ 그러므로 경상북도와 강원도 영동지역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차이로 고유한 지역적 특징이 있다. 경상북도는 대부분이 내륙지형이다. 물론 산악 지형으로 안동, 청송, 문경 등 있기 하나 강원도만큼 험한 산세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특히 이황이 태어나고 성장한 안동은 지리적으로 산간 내륙 지역이다.

안동지역은 일찍부터 선비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따라서 자연히 중앙인 궁궐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수도권 지역과의 관계 형성이 잘 교통 되다 보니 당연히 외국의 문물과 교류가 잘 발달되었다. 안동 지방의 특색은 산간 문화와 궁중 문화와 외국문물과 어울려져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대조적으로 강원도 영동지역은 해안평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평야가 척박하다. 또한 해역은 황해와 남해에 비하여 수심이 깊고 어로의 수역이 좁아 다른 지역보다는 생업 활동이 그다지 적합하지 않는 곳이다.⁵¹⁾ 산세도 험준하고 지리적으로 수도권과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소외된 지역이었다. 특히 이이가 생활한 영동지방은 고지대의 산지가 많으며 바다를 끼고 있는 어촌이다. 주로 고기잡이, 소금에 관계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49) 위의 논문, p. 45.

50) 윤동환, 『동해안의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민속원, 2010, p. 175.

51) 위의 책, p. 258.

생업에 종사하는 일을 보아도 경상 북부는 농업, 임업 등 육지와 관련된 일을 하며 여성들은 제주도의 해녀들처럼 생업을 주관적으로 뛰어드는 환경이 아니다. 민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로 집안일이나 아니면 농사를 경작함에 있는 보조 역할을 하는 정도의 노동, 대개 시집살이의 고된 노동요가 발달해 왔다. 반면 강원도의 여성은 제주도 여성들처럼 일찍이 생업에 참여하였고 해녀 일을 업으로 해산물과 물고기를 사고팔며, 건조시키고 운반하는 바다 일과 화전의 밭을 경작함과 더불어 산나물 채취 등 생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했다. 특히 영동지방에는 민간 신앙인 <여신>신앙이 많다. 강원의 여신은 지역민의 안녕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신격이다.⁵²⁾ 영동지방은 현재 까지도 매년 3월, 4월, 5월 중에 <별신굿>이 있다.⁵³⁾ 굿이 행해지는 기간 동안에는 제단에 진설을 하고 3일간 음주가 무하여 축제적인 분위기이며, 일상적으로 행하여졌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⁵⁴⁾ 특히 강릉의 <사천진별신굿>에는 굿의 중간에 동해지신을 비롯한 다른 신에게 유교식 제의 절차가 있으며⁵⁵⁾ 또한 동해안의 굿은 다른 지방처럼 불교의례를 수용하였다.⁵⁶⁾ 옛 부터 “강원도 여성은 가신신앙(家神信仰)의 주관자로서 오래전부터 가족의 무사 안녕과 가운의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집안의 신(神)적인존재를 믿고 신에게 풀어먹이는 제사를 지냈다”⁵⁷⁾ 따라서 열악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는 특히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은 주술 종교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무속 신앙에다가 도교가 자연히 발달했다.⁵⁸⁾

2.2. 도상적 특징

1) 용

유교 문자도<충>자의 소재 상징인<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용의 기원설은 화석설, 상상동물설, 토탑기원설, 뱀기원설, 나가(naga)기원설, 기상현상설, 등 크게 여섯 가지로 볼 수 있다.

화석설은 용이 선사시대의 공룡이나 다른 거대한 동물들의 화석을 보고 지구의 기후변화와 환경으로 소멸된 파충류의 동물이라고 보는 견해이다.⁵⁹⁾ 공룡의 생김새를 보면 전지가 짧고 발에는 다섯 개의 지두가 있으며 말단에는 손톱이 있어 마치 사람의 손처럼 되어있다.⁶⁰⁾ 즉 선사시대의 공룡이나 맘모스의 화석은 고대인에게 있어서 상상력과 두려움

52) 박미현, 「강원여성사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44

53) 윤동환, 『동해안의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민속원, 2010, p. 178.

54) 위의 책, p. 178.

55) 위의 책, p. 189.

56) 위의 책, p. 257.

57) 박미현, 강원여성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8, pp. 70~73.

58) 윤동환, 『동해안의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민속원, 2010, p. 175.

59) 이장혁, 「불교경전에 나타나 용의 상징성연구」, 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p. 3~11.

60) 이동철, 『한국 용설화의 역사적 전개』, 민속원, 2005, p. 34.

을 자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용의 존재를 믿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⁶¹⁾ 상상동물설은 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으로만 이미지화 되어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후한시대의 고서인 <설문해자>에 의하면, “용은 비늘을 가진 짐승의 우두머리로 어느 때에는 보이지 않다가 어느 때는 홀연히 나타나며,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며 길게도 짧게도 될 수 있고, 겨울에는 못에 숨어 있다가 봄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변화자존의 영력(신령스러운 능력)을 가진 동물이다.”⁶²⁾라고 하였다. 위에서 말한 동물을 실제로 존재할 수 없으며 신적인 상상의 동물인 것이다. 토론타기원설은 고대 황화 유역의 서이족이 뱀을 두려워 생긴 것으로 뱀 대신용으로 신격화 시켜서 믿었다고 한다.⁶³⁾ 서이족은 고대 중국의 부족국가로 오랫동안 황하유역에서 뱀과 가까이 살았다. 뱀과 함께 가까이 살다보니 뱀에 대한 공포가 다른 부족보다 달라 뱀을 회유하고 신격화하여 숭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⁶⁴⁾ 이때의 뱀은 더 이상의 뱀이 아니고 인간 삶의 인문화 과정을 통하여 용으로 신격화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⁶⁵⁾ 뱀 기원설은 뱀이 신비한 존재이고 숭배의 대상으로서 고대인들에게 인식되었고, 거기에다 상상적인 요소가 감미 되어 용으로 성립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⁶⁶⁾ 나가(naga)기원설은 뱀 기원설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나가(那伽)는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뱀으로써 반신격의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이다. 나가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코브라 등 독사를 가리키는 뱀을 의미한다.⁶⁷⁾ 기상현상설은 수권설이라고도 하는데 흔히 용오름을 연상하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기상현상학설은 구름이 적운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구름아래에서 깔대기 모양의 긴 구름을 말한다. 이 현상이 해수면이나 강이나 못에서 생성될 때 멀리서 보면 긴 물체가 승천하는 것처럼 보인다.⁶⁸⁾ 위의 학설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용의 기원설은 기상학설, 사신숭배설(蛇神崇拜說-뱀신앙), 화석설(化石說)이다.⁶⁹⁾

용의 형태를 보면 중국 은나라 시대에는 용은 몸의 각 부분이 뚜렷한 동물의 형태를 서술되지 않았고 다만 몸이 짧은 뱀으로 꼬리가 있으며, 머리엔 뿔이, 발에는 외파(瓜)형이다. 눈은 뇌문(雷門)으로 되어 있고, 입은 크고 벌려있는 형태이다. 주 나라대의 용은 은 나라와 비슷하지만 가늘고 긴 뱀으로 문양이 복잡하여지고 머리는 마(馬)형을 닮았다. 뿔은 들소 뿔을 닮았고 입은 공격적으로 달려드려는 형상이다.⁷⁰⁾ 후한시대에 왕부가 용의 본체를 표현하길 머리는 뱀,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은 뱀, 배는 조개, 비늘은

61) 위의 책, p.34.

62) 장태현, 『동물의 미술』, 설화당, 1979. p. 66.

63) 안상수, 『전통문양 자료집-용무늬』, 서울:안그라픽스, 1995, p. 13.

64) 이장혁, 앞의 논문, p. 3~11.

65) 안상수, 『용무늬의 기원과 변천-한국전통문양집 7권 용무늬』, 안그라픽스, 1995, p. 14.

66) 양명학, 「한국소설에 나타난 용과 용궁의 상상」, 울산어문논집3:울산대 국어국문학과, 1987, p.155.

67) 이장혁, 앞의 논문, pp. 3~11.

68) 이동철, 앞의 책, p. 32.

69) 위의 책, p. 32.

70) 위의 책, p. 29.

잉어, 발톱은 매, 발바닥은 호랑이를 닮았다고 하였다.⁷¹⁾ 위나라시대는 머리가 낙타로 바뀐 것 외에는 동일하며, 명나라시대의 <본초강목>에는 왕부의 내용과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다. “머리는 낙타와 같고, 뿔은 사슴과 같고, 눈은 토끼와 같고, 귀는 소와 같으며, 목은 뱀과 같고, 배는 신(蜃-무명조개, 이무기)과 같고, 비늘은 잉어와 같고, 발톱은 매와 같으며, 발바닥은 뱀과 같다. 그리고 등에는 81개의 비늘이 있어 9•9의 양수를 갖추었으며, 그의 소리는 구리판을 때리는 것 같고, 입가에는 수염이 있으며, 턱 밑에는 명주가 달리고, 목 아래엔 거슬 비늘이 있고, 머리엔 박산이 있는데 또 척목이라고도 한다. 용에게 이 척목이 없으면 하늘에 오를 수 없다. 기운을 토하면 구름이 된다.”⁷²⁾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뿔은 사슴같고, 머리는 소같고, 부리는 당나귀같고, 눈은 새우 같고, 귀는 코끼리 같고, 비늘은 물고기 같고, 수염은 사람 같고, 배는 뱀 같고, 발은 봉황 같다.”⁷³⁾라고 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용은 동물들의 최대의 강점들만 모여진 복합적인 동물이다.⁷⁴⁾

한국의 용을 살펴보면 조선 중종대의 <훈몽자회>에 <미르룡>라고 표기되어 있다. <미르>는 물을 일컫는 말로써 물의 기원을 두고 있다. 이표기로 인하여 한국의 용은 중국과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미 그 전에 우리나라 고유의 용 관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문헌인 삼국사기엔 용이 나타난 시기와 장소가 기록되어 진 것을 보면 음력 정월2건, 2월 4건, 3월4건, 4월 7건, 5월 2건, 7월1건, 9월이 2건으로 겨울에는 없으며, 출현장소는 우물이 11건, 한강이 2건으로 물과 관련이 많다.⁷⁵⁾ 삼국사기 신라편의 내용을 보면 <혁거세 60년>에 “秋 9월, 용 두 마리가 金城의 우물 속에서 나타나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고”, <자비왕4년, 461년>에 “夏 4월, 금성 우물에 나타남. 왕의 혼인” 라고 써어 있다. <소지왕22년, 500년> “夏 4월, 폭풍이 불어 나무를 쓰러뜨리고, 용이 금성 우물에 나타나고 서울 누런 안개가 사방으로 덮였다.(3월 왜 침입,11월 왕 사망)” 용의 징조를 서술하고 있다. <진평왕15년> “春3월, 큰 가뭄에 들어 시장을 옮기고 용의 그림을 빌어 비를 기원했다.” 또한 <문무왕21년> “秋7월, 문무왕이 사후 동해의 바위에 묻히고 자 유언해서 그에 따라 장사지냈다. 속전(俗傳)에는 왕이 용으로 화(化)하였다하여 그 돌을 대왕암(大王岩)이라 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인 우리나라는 용의 신적(神的) 속성 중에서 수신(水神)에 적의를 두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당연히 지역상 물과 관련이 있는 용 신앙은 내륙분지 산악지대의 지리적 환경을 가진 경상북도보다 동해안을 비롯해 바닷가를 가까이 두고 삶의 터전으로 생활해 가는 지역적 환경인 강원도가 용에 대한 신앙과 친근함이 더 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용은 동물들의 강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무쌍한 존재

71) 김지영, 「전통문화에 수용된 상상 동물의 도상해석학적 분석-사령수(四靈獸) 민화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학술 논문, 2017, p. 20.

72) 본초강목, 린鱗 部部

73)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74) 김지영, 앞의 논문, p. 20.

75) 황민정, 「한국고대사회의 용신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p. 10.

로서 구름과 비를 일으키며, 하늘과 땅에서 자유자재로 그 능력을 펼치므로 민간에서는 풍농과 풍어를 가져다주는 영물로 여기지기 때문이다.⁷⁶⁾

따라서 이황이 거했던 안동을 중심으로 한 지방은 지역의 특성 상 용을 주요 소재로 하여 정중앙에 화려하고 수려하게 채색하여 의미를 부여하여 그리는 것은 다소 거리감이 있다.

물론 용의 의미가 수신(水神)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박용숙은 샤먼문명으로 중국 4세기 문헌인 <산해경>에 “무녀가 두 마리의 뱀을 쥐었다.” 전설적인 여신 “서왕모가 무녀들을 거느리고 약초를 캔다.”⁷⁷⁾하여 계절을 겨울과 여름으로 나누고 있다고 했다. <북희의 팔괘>에서는 “붉은 색 뱀은 고급과학의 수호자이고, 흰 뱀은 음력의 상징”⁷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 신라의 용은 호국용(護國龍), 호법용(護法龍)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⁷⁹⁾고 하였으며, 도교에서는 용이 사령수(四靈獸)의 하나로 성스러운 짐승으로서 인간의 인생 길흉화복을 예언해준다고 했다.

이러한 도교사상은 고분벽화나, 묘실, 궁전에 자주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세화와 각종 무늬에 등장하였다,⁸⁰⁾ 고려시대에 와서는 풍수지리사상으로 더욱 토착화되어 용은 왕권의 상징, 기우(祈雨), 벽사(癘邪)의 의미로 민속신앙으로 더욱더 뿌리 깊게 내려졌다.⁸¹⁾ 또한 용의 승천(昇天)과 성선(成仙)은 선계(仙界)로 나아가는 수단이며 비룡승천(乘龍昇天)이나 비룡성선(乘龍成仙)은 특정신분<황제>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임을 나타냈다.⁸²⁾

용은 영물중의 영물로서 진시황제부터 용이 왕과 왕권을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왕권강화와 명분을 위하여 <왕권신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신이 용의 감응을 받아 탄생한 <진룡천자(眞龍天子)>임을 강조하여 자신의 왕권은 하늘이 내린 것이라 미화하였다.⁸³⁾ 왕권신수 사상은 조선조까지 내려와 <용비어천가> 제 1장에 보면 용의 뿔뿔이를 성인에 비기어 조선의 역대 조상들과 왕을 용으로 묘사하여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언급하면 조선은 용비어천가 제 1장을 통해 자신의 6대조를 “海東六龍·이노·ᄃᆞᆫ·샤. :일 :마다天福·이시·니. 古聖·이·同符·ᄃᆞᆫ·시·니(해동육룡이 나르시어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⁸⁴⁾ 라고 하여 비룡의 의미를 부여하고 유교의 최고 성인군자에 빗대어 조선의 건국과 절대 왕권과 용이 곧 왕으로 신권을 부각 시켰다. 김일권 역시 고

76) 이종관, 『십이지와 띠 문화에 관한 근원적 고찰』,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p. 31.

77) 박용숙, 『샤먼문명』, 소나무와 민들레, 2015, p.126.

78) 위의 책, p. 127.

79) 김영태, 「신라불교에 있어서의 용신사상」, 불교학보11,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74, pp. 123~153.

80) 김지영, 앞의 논문, p. 20

81) 박소빈 「용의 상징성과 조형성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p.7~10

82) 이경미, 「한국고대 용봉문양의 역사고고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 35.

83) 정연학, 『용과 중국문화, 용: 그 신화와 문화-서영대·송화섭 편』, 민속원, 2002, pp.50~53.

84) 龍飛御天歌, 제 1장 서문

구려황룡사상을 왕권의 상징과 더불어 고구려 황제의 대변인으로 상징이라고 했다. 따라서 용은 왕과 동일시됨으로써 왕의 얼굴은 용안, 왕의 의복은 용포, 왕의 눈물은 용루, 왕의 의자를 용상 등 왕과 관계되는 대부분이 용의 존재로 여겼다.

유교에서는 용을 최고의 성인군자로서 용이 가진 덕은 대인의 품모와 인격으로 비유하고 변화무쌍한 존재이지만 본질은 잃지 않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한 것은 군자의 최고의 모습이라 했다.⁸⁵⁾ 또한 공자는 최고의 성인군자가 되는 과정을 용이 되는 과정으로 비유하고 있다.⁸⁶⁾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용은 억불숭유 국책(國策)의 방향으로 철저히 유교적 관념과 결부된 왕권의 상징으로서 제도화하며 격식의 정형화가 엄격하였다.⁸⁷⁾ 이점은 명나라의 엄격주의와 상통하며 발톱이 다섯인 오조룡(五爪龍)은 민간용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다.⁸⁸⁾ 위의 내용으로 보아 궁중에서 그리는 용과 민간에서 그리는 용(민화)이 달리했음이 나타난다. 이러한 까닭은 박소빈의 논고에 따르면 고대 중국의 계급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크게 남방부는 도교, 북방부는 유교를 발전시켜왔고 계급성에 따라 궁정 <용>과 민간 <용> 예술로 구별 짓게 되었다.⁸⁹⁾고 한다.

한국에서의 용은 <수신(水神)>, <왕으로서의 지존(至尊)>, <신령적인 벽사(闢邪)와 앞날의 예시(豫示)>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용을 만물중의 으뜸이라고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은 산간 내륙 분지의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방보다는 바다와 더불어 삶을 지탱하며 생업하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안지역이다.

울곡 이이의 활동무대였던 강원도와 한반도 북쪽 지방은 고려 태조 왕건과 왕건의 어머니 또한 용으로 시작하여 용에 대한 민속신앙이 두드러졌다. 또한 울곡 이이는 태몽으로 해룡의 정기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입신등용을 의미하는 예시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황 보다는 울곡 이이가 용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교적 관념과 민속 신앙적 관념이 더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황이 거주하고 힘을 쏟았던 산간 내륙 지방과 분지에 속하는 지역은 당연히 용을 <수신>이나 <예언의 기능>을 가진 민속신앙을 바탕으로 한 바닷가의 지역 특성과는 현저히 다르다. 특히 이황은 인종과 선조의 스승으로서 선조 임금의 묘지명을 보면 <성학십도(聖學十圖)와 서명고증(西銘考證)을 지었으며 정이(程頤)의 사물잠(四勿箴)을 손수 써서 올리니, 대왕께서 마음을 비우고 기꺼이 받아들여 모두 정서(精書)하여 병풍을 만들라 명하고 좌우에 놓아두고 조석으로 성찰하였다. 이황이 별세하자 슬퍼하여 마지않으며 ‘이황의 글과 말은 모두 후세에 전할 만하니 유사로 하여금 모아서 간행토록 하라.’> 라고 하였다.⁹⁰⁾ 이처럼 왕이 병풍을 만들어 아침저녁으로 성찰할 정도로 스승이황

85) 이경미, 앞의 논문, pp. 30~32.

86) 위의 논문, pp. 30~32.

87) 박소빈, 앞의 논문, p. 48.

88) 위의 논문, p. 21.

89) 위의 논문, p. 17~20

90) 선조실록, 선조부록, 선조대왕묘지명

에 대한 마음가짐과 이황이 왕에 대한 마음과 사상을 성학십도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한 안동지방과 경상도 유교문자도 에는<성학십도(聖學十圖)>와 결합되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많다.⁹¹⁾ 경상도 문자도가 강원도 문자도와 차이가 가장 큰 것은 강원도 관서지방의 유교 문자도와 비슷하지만 주술적인 면이나 그와 관련된 상징물과 장식물은 찾아보기 어렵다.⁹²⁾는 것이다.

위의 사료에 따라서 이황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과 그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선 유교 문자도 중 “충(忠)”자 에는 어변성룡(魚變成龍)을 의미하는 <용>은 보이지 않는다.

2) 새우

수족류(水族類)에 들어가는 갑각류의 한 종류인 새우는 물고기나 조개, 게 등과 함께 어해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새우는 유어도(遊魚圖)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보통으로 어패류 암수 한 쌍으로 그려져서 춤을 추 듯 한 새우, 뭔가 모자라듯 보이는 물고기, 입 벌린 조개 등은 사람 인격에 비유되어 나타냈다⁹³⁾.

갑각류이면서 절지동물인 새우의 의미는 첫째, 새우는 생태학적으로 절지동물로서 굽어있는 모습이 나이가 든 노인의 허리가 굽은 것과 긴 더듬이와 짧은 더듬이 두 쌍이 꼭 긴 수염과 비슷하여 <바다의 노인>이라는 의미로 해로(海老)라고 상징 한다.⁹⁴⁾ 둘째, 위의 한자 해로(海老)는 부부해로(夫婦偕老)의 해로(偕老)와 독음이 같아 한평생 부부가 함께 늙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⁹⁵⁾ 셋째, 새우는 게의 등 껍질처럼 갑옷과 형태와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갑(甲)>으로 상징한다. 또한 <갑(甲)>은 천간(天干)의 첫 시작임으로 과학(科學)의 첫째인 일등급의 장원급제(壯元及第)를 뜻하기도 한다.⁹⁶⁾ 넷째, 전신 갑옷을 입고도 사해를 두루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으로 만만순(彎彎順)하여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함이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다.⁹⁷⁾ 다섯째, 딱딱한 갑(甲)이 둘러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고 유연함으로 <유어도>에서 나타난 상징과 같은 행복, 다산, 가족애, 부부애, 가족평화 등을 의미한다. 여섯째, 새우나 조개는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어 변함없는 굳은 절개와 지조를 의미한다. 일곱째, 드물긴 하지만 수선(水仙)이란 의미로 신선처럼 사는 것을 말한다.⁹⁸⁾

91) 사단법인 한국민화센터, 『한국 민화 논총』, 도서출판, 2003, ,p.736.

92) 이명구. 앞의 책, p. 198.

93) 황정희, 「조선시대 어해도(魚蟹圖)의 상징적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 4.

94) 위의 논문, 35.

95)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2003, p. 88.

96) 황정희, 앞의 논문,p. 17~18.

97) 조에스더, 「조선 왕조 후반기 어해도의 상징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p. 264.

98) vanitas, 중국의 국보적 화가 제백석(齊白石)과 '새우'의 의미, 2019.

새우는 우리나라 회화에선 단독으로 그려지는 예(例)가 흔하지 않다. 게, 조개와 함께 그려진 <유어도>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회화를 하합도(蝦蛤圖)라 한다. <하합도>는 새우를 뜻하는 한자어 하(蝦)와 조개를 뜻하는 한자어 합(蛤)자의 음운이 축하의 하(賀)자와 화합의 합(合)과 같아서 혼례, 회갑, 고회 등 축하의 자리에 선물용으로 쓰여 졌다.⁹⁹⁾ 이렇게 유래되어 온 하합(蝦蛤[xiā gé])을 화합(和合[hé hé])으로 보는 경우는 중국의 병음식이 아닌 한국의 동음이의어 식이다. 중국의 병음은 하합(蝦蛤[xiāgé])↔賀合[hè hé] 또는 화합(和合[hé hé])으로 표기됨으로 음가적(音價的)으로 그 유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¹⁰⁰⁾ 따라서 <꿩어도>나 <노안도(蘆雁圖)> 등과 같이 중국식 병음이 아닌 한국적인 상징의 의미로 미루어 짐작된다.¹⁰¹⁾ <하합도>는 <하합상하(蝦蛤相賀)>라는 주제로 조개가 여성의 생식기로 여자를 상징하고 새우는 조개 위의 수염을 가진 남성을 은유적으로 상징¹⁰²⁾하여 부부간의 화합이나 신하가 충절을 다함으로써 군신간의 화합을 상징하고 있다.¹⁰³⁾

새우의 한자를 보면 ① 蝦두꺼비 하, 새우 하 ② 蝦새우 하 ③ 蜷새우 노, 새우 로 ④ 蝦 두꺼비 하, 새우 하 ⑤ 蟬새우녕, 새우 영 ⑥ 蟬새우 미 ⑦ 魴새우 분이 있으며, 새우의 속담은 ①경전하사(鯨戰蝦死):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¹⁰⁴⁾ ②새우 벼락 맞는 이야기를 한다 ③하위이 조거리(蝦爲餌 釣巨鯉): 새우를 미끼로 삼아 큰 잉어를 낚는다 ④도랑 새우도 삼년 이면 씨 꽃이 돈는다. ⑤새우잠 잔다. ⑥고래 사흘 만에 새우하나 먹은 셈 ⑦이하조별(以蝦釣鰲): 새우로 자라 낚기 ⑧절이 망하러니까 새우젓 장수가 들어온다 등이 있다.

왜 유교문자도 “충(忠)”자에 뿔을곤을 대신하는 대나무에 <용> 대신에 <새우>로 변모한 양상이 경상도 지역에서 그려졌을까? 새우의 그림은 고려시대, 조선전기, 조선중기에 는 보여 지지 않는다. 새우의 그림은 18세기 전반에 들어서면서 2점, 18세기 후반에서 7점, 19세기 들어서면서 7점이 검토된다.¹⁰⁵⁾ 그 이유는 첫째, 새우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서민들의 가까이에 생활과 함께 있었으며 18세기 사회변동 속에서 신분질서의 변화와 상·공업의 발달에 따른 결과로 양반 사대부가 아닌 새로이 성장된 여염집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이다.¹⁰⁶⁾ 따라서 초기 중국으로부터 수용된 <유교문자도>는 더 이상 궁중이나, 사대부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민간의 전형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부의 축적이 궁중이나 사대부 양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 백성들에게도 주어짐으로 인하여 민간 생활의 성장과 민중의식 성장으로 민중예술과 민중문화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대부의 화풍에서 벗

99) 황정희, 앞의 논문, p.20

100) 조예서더, 위의 논문, pp. 277~279.

101) 위의 논문, pp. 277~279.

102) 윤열수, 앞의 책, 1998, pp. 166~167.

103) 허균,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교보문고, 1991, pp. 134~136.

104) 홍만종(洪萬宗), 『순오지(旬五志)』, 조선 인조시대.

105) 조예서더, 앞의 논문, p. 281.

106) 김성찬, 위의 논문, p. 38~39.

어나 정형화가 무시되고 서민계층의 독특한 양식의 화풍이 보여 진다. 셋째, 조선후기의 불안하고 암울한 시대적 배경이 더욱더 서민의 사고에 정서적 이입으로 새로운 상징적으로 변모되어 왜곡과 기복신앙이 어우러져 백성의 솔직한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넷째, 시대적 배경의 혼란으로 도덕적 관념이 무너지고 유교사회의 혼란이 야기되자 서체의 아름다움을 표방하여 도덕적 합일점과 유교사회의 통치구현을 위하여 소학에서 나오는 유교의 덕목 여덟 가지를 내세워 인간의 지켜야 할 도리를 알리고 교육적으로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교문자도 “충(忠)”자에 나타난 이황의 영향을 받은 경상도 지역의 새우의미는 신하가 임금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로서 백년을 해로하는 부부처럼 임금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역모를 도모하지 않고 끝까지 충절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의미 더 강조된 것이라 추정한다. 그러나 율곡의 영향을 받은 서울권 비롯한 북쪽의 새우의미는 고려시대부터 음양오행사상이 도교의 풍수지리사상으로 토착화되어 민속신앙과 더불어 민중의 무의식에 음양사상이 녹여져있음을 추정한다.

유교문자도“충(忠)”자는 왕과 신하의 상하를 나타낸 군신관계로서 임금은 양, 신하는 음으로하여 양은 지아비, 또는 남자, 음은 지어미 또는 여인으로 빗댄 것이다. 군신관계의 음양오행사상에서는 왕은 지아비, 신하는 지어미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 예(例)로 고시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에 보면 “이 몸 삼기 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한생 연분(緣分)이며 하날 모랄 일이런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대 노여업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영언의 해동가요에 이조년의 시를 살펴보면“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이야 이라 마난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야 잠 못 드리 하노라.” 고려 정몽주의 단심가에서도 저물어 가는 고려를 “님 향한 일편단심“으로 표현하였다. 근대로 넘어와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도 <님>을 나라를 사랑하는 연인으로 표현하였다.

위의 사료로 볼 때 퇴계 이황이 거주하고 활동했던 경상도 지역은 음양의 오행보다는 주제의 화제로서 신하의 충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율곡 이이가 생활했던 강원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민속신앙과 함께 음양오행사상에 입각한 상징으로 보인다.

IV. 유교문자도의 “충(忠)”에 나타난 용·새우의 양상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유교문자도의 시기는 지방의 지리적 특징과 유교 문자도의 지방색이 뚜렷이 나타나는 시기로 초기의 도상과는 달리 화면에 고사의 내용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두고 표현하였기에 무엇보다의 상징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중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각 지방의 유교문자도의 특색과 이 논고에서 연구하고자 한 “충

(忠)”자의 두 가지 양상에서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서울 경기 및 강원도 문자도에 나타난 용·새우의 양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지역은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흡수, 전파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 후기 당시에도 서울인 한성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중심역할을 했다.

경기·수도권의 초기작품 (그림 8)을 보면 (그림 9), (그림 10), (그림 11)의 중국의 길상 문자도인 효제문자와 거의 흡사하며, 화원의 도화서 화풍으로 그려졌다. 즉 도화원의 화원의 풍이란 중국의 양식에 충실했다는 의미이다. 전체 화면의 구성이나 배치가 중국의 구성과 크게 다른 점이 없고 표현법은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의 획이 중국의 고사와 함께 문자 안에 표현되어 있다. 상징이나 단순화나 변화의 틀을 깨지 않고 그림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양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및 각 지방은 그



<그림 8> 효제문자도, 42.5×74.2cm, 호암미술관 소장



<그림 9> 수문자,
천족자, 39.6×72cm
동양문자도, p. 52



<그림 10> 수문자,
천족자, 9.87×145cm
동양문자도, p. 52



<그림 11> 복문자,
지본채색, 68×134cm
동양문자도, p. 52

지역의 문화나 기후, 생태에 따라 독특한 화풍을 자아냈다.

초기 작품과 비교해보면 중국의 길상 문자도와 비슷한 실루엣은 사라지고 여덟 글자의 유교 문자마다 새로운 상징적인 도상이 주제로 등장한다. 효(孝)에는 잉어, 부채, 죽순, 거문고, 굴, 제(悌)에는 할미새, 산 앵두나무, 충(忠)에는 용과 잉어를 주제로 한 조개와 새우, 대나무, 신(信)에는 청조, 흰기러기, 예(禮)에는 거북이, 책, 의(義)에는 복숭아꽃, 물수리, 연꽃, 염(廉)에는 봉황, 게, 치(恥)에는 수양산, 달, 매화, 충절비, 누각 등이 있다. 이러한 상징적인 도상은 모든 지방마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각 지방마다 독특한 특색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백퍼센트 한 지방에만 유일하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본 연구자가 “충(忠)”자의 자획 “중(中)”자를 이루고 있는 “곤(丨)”의 도상이 용, 새우를 220점 조사하고 검토하였는데 그 중 중복되거나 병풍이 아닌 족자나, 온전한 여덟 글자가 없는 도상을 제외하고 100점 선별하여 “곤(丨)”의 양상과 백분위를 나타낸 결과 <표 4-표 목록 참조, 표 5>에서 정리하였다.

<표 5> 지역적 유교문자도의 뿔을 ‘곤(丨)’에 그려진 용과 새우의 양상과 백분율 (100점)

구 분 지 역	용	새 우	용또는새우 없음	합 계
수도권 및 강원도, 북한	38 (92.7 %)	9 (7.3 %)	0 (0 %)	100%
경상도 및 전라도,	3 (10.3 %)	24 (82.8 %)	2(6.9 %)	100%
제주도	0 (0 %)	0 (0 %)	24(100%)	100%
합계	41	33	26	

서울권 “충(忠)”자를 보면 주류가 용과 잉어가 함께 그려진 어변성룡의 그림이다. 그런데 <표 5>에서 보듯이 약 7.3%가 새우가 등장하는 어변성룡의 도상이 아닌 새우와 대나무의 화작이다.

“충(忠)”자의 도상을 살펴보면 (그림 12), (그림 13), (그림14)와 같다. (그림 12)를 보면 앞에서 설명한 뿔을 ‘곤’자획이 막대기인지 대나무인지 불분명하게 표현되었다. 반면에 용과 잉어는 확실히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양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나 북한의 “충(忠)”자에도 나타난다.

위의 작품은 어변성룡의 도상이다. (그림 12), (그림 13), (그림14)도상에는 용, 잉어, 조개, 새우, 대나무로 하여 중국의 고사인 비간(比干)의 충성에 대하여 적혀 있다. “충(忠)”자의 마음[心] 6획 위부분에 살이 찌고 통통한 잉어가 용꼬리를 입속 깊숙이 물고 있다. 용은 “충(忠)”자의 자획인 뿔을 곤 대신한 대나무를 온 몸으로 감싸고 있다. 잉어가 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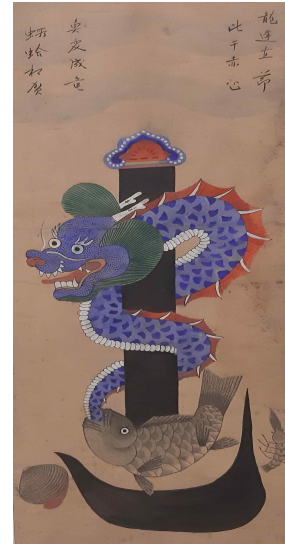
꼬리를 꼭 물었는데도 그 표정은 놀랍도록 즐거우며 서기(瑞氣)까지 내 뿜으면서 역린(鱗)



<그림 12> 문자도 ‘충’, 영남대학교 박물관



<그림 13> 문자도 ‘충’, 계명대학교 행소 박물관



<그림 14> 문자도 ‘충’, 계명대학교 행소 박물관

현상을 하고 있다. 용의 색채 또한 잉어의 소박한 색깔과는 달리 화면을 꽉 채울 만큼 주화(主畵)로서 화려하다. 용과 잉어의 관계는 중국의 후한서의 이응전(李應傳)에 보면 용문협곡(龍門峽谷)이라는 고사내용이 있다. 용문협곡(龍門峽谷)이란 해마다 봄철이 되면, 黃河 상류에 용문협곡이란 곳에 잉어들이 모여들어 서로 앞을 다투어 세찬 급류에서 튀어 오른다. 이 때 용문협곡을 뛰어 넘는 잉어는 용이 되어 승천한다고 한다. 즉 잉어가 용이 된다는 설화이다.[魚變成龍] ‘갈암집’에 보면 “이생(李生)이 노형과 한자리에 앉아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니, 이는 잉어가 용문(龍門)에 오른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¹⁰⁷⁾

잉어의 상징은 주로 왕상의 효, 주로 어해도의 의미인 다산, 등용을 바라는 선비, 튀어 오르는 모습은 과거급제 혹은 출세, 또한 고귀하고 현명한 여성을 의미한다.

유교문자도에서 어변성룡(魚變成龍)은 등용문(登龍門)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등용문은 잉어가 용문폭포에서 튀어 올라 여의주를 물게 되면 용이 된다는 것이다. 즉 선비가 숭한 어려움을 견디고 과거에 급제하여 등용(登庸)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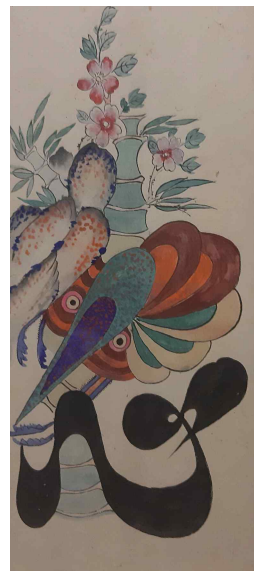
“충(忠)”자의 7획과 8획 부분의 표할 주(丶)에는 새우와 조개가 대체되어 오른 쪽과 왼 쪽에 놓여 있다. 새우는 등이 굽어 있고 수염을 길게 표현하여 나이든 노인을 연상하게 한다. 조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 지조를 연상하게 한다. 새우와 조개는 ‘하합상하(蝦蛤

107) 갈암집 속집 제1권 / 서(書)

相賀)’라 하여 군신간(君臣間)의 화합을 상징한다. 새우와 조개는 갑옷처럼 딱딱한 껍질로 이루어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어변성룡의 상징은 과거에 급제하여 임금을 지조와 절개로서 지킨다는 의미이다. 어변성룡의 그림에는 대부분이 다섯 가지의 소재와 더불어 산수(山水)나 고사성어가 배경으로 들어가 2단 혹은 3단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림 15), (그림16)의 도상에는 소재부터 다섯 가지가 아니라 주로 대나무, 새우 두 가지가 들어간다.



(그림 15) ‘충’
경산시립 박물관



(그림 16) ‘충’
계명대학교
행소 박물관

대나무는 “충(忠)”자의 뿔을곤을 대신하여 그려졌다. 어변성룡의 대나무와는 달리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새우 또한 어변성룡의 도상과는 달리 용 대신에 대나무에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크게 그려져 있다. 여백의 배경에도 산수화나 다른 그림이 없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채색이 되어 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어 물아에 대한 욕심이 없고, 무게 없이 가볍게 힘없이 보일지라도 그 마디마다 단단함과 기상과 성품은 휘어짐 없이 울곧아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절대 휘어짐이 없다. 이런 성정으로 인해 윤선도는 오우가에서 대나무를 사군자 중에서도 지조와 절개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닌 울곧은 선비를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갑각류인 새우는 갑옷과 같은 딱딱한 껍질의 의미로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정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새우가 그려진 화작(畵作)은 대나무처럼 울곧은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

정한다.

어변성룡과 새우의 화작도를 <표 6>에서 정리하였다.

<표 6> 어변성룡과 새우의 화작 도표

구 분	어변성룡(漁變成龍)	새우 화작[蝦畫作]
주요 소재	잉어, 용, 대나무, 새우, 조개	대나무, 새우
색 채	화려함	소박함
주 제	잉어가 용이 되는 것	몸이 굽어질 정도로의 절개
용	있음	없음
새 우	작게 그려져 있음	크게 그려져 있음
대 나 무	형태가 구분이 잘 안됨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려짐
조 개	있음	대부분 없음
잉 어	있음	없음

위의 도상의 차이가 지역적으로 나타는데 강원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주로 어변성룡의 그림이고 경상도와 아래는 주로 새우의 화작이다.

관동 지방인 강원도 지방은 <제주도문자도>에 나타난 주된 표현처럼 지역적 문화 바탕에 유교 문자도가 도상되어 있다. 즉 강원도는 예부터 태백산맥 줄기의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룬다. 이러한 자연 환경은 예부터 사대부는 물론이고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예로 문학에서 정철의 관동별곡과 미술 작품으로 관동팔경도가 유명하다. 이러한 소재가 많이 남아 있는 회화는 유교문자도이다. 다른 회화 그림에 비해 약 80 %가 <유교문자도>에 나타난다. 108)

108) 윤열수. 앞의 논문 , p. 142.



<그림17> 효제문자도, 8폭 병풍, 지본채색, 28×78cm,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강원도 문자도의 (그림 17)을 보면 중앙에는 유교문자를 배치하고 상단이나 하단에 산수도, 화조도, 책가도등 표현하여 장식미를 더하고, 양식적으로는 〈화제+문자형〉, 〈화제+문자+산수형〉, 〈화제+문자+화조형〉 〈화제+문자+책거리형〉 109)등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2단이나 3단의 구성으로 상감기법처럼 그려 넣는 표현법은 중국의 수복길상 문양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림 18>. 유교문자도, 지본채색, 각 128×35.5cm,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강원도)

색채는 화려하며 단청에 채색되는 강렬한 색상을 주된 색감으로 그려져 힘차며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¹¹⁰⁾ 이러한 구성은 대개 강원도의 맥을 이어온 이규황의 제자 황

109) 위의 논문, p. 142.

승규 화가 그린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9> 유교문자도, 이규황 作,지본채색, 각105.5×33.5cm, 이명구 소장

이규황이나 황승규의 그림은 책거리 부분의 책을 세로로 높이 쌓아올려 보통으로 2단이나 3단으로 이루고 색채는 주로 사찰 단청 색을 사용하여 색채가 화려하다고 한다. 이렇게 색상이 화려한 이유는 황승규를 비롯해 민화작가들이 사찰 단청작업에 참여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양식이 강원도 문자도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고착화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산수와 결합된 문자도로서 2단 구성 혹은 3단 구성은 그 콜라보가 절정을 이루며 그 화려함이 최고 중 최고라 하겠다. 역시 화원 후예의 피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은 경기 이북인 북한지역에서도 보여 진다.

북한문자도는 지역상으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로써 조선시대의 8도 중 3지역이 해당 되는 곳이다. 역사적으로 고구려, 고려와 관계가 깊고 우리나라 최초의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운 곳도 북한 위쪽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지리적 자연환경의 특징으로 북방 민족의 문화가 크게 작용하여 북한 주민의 독특한 양식으로 고착화가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연유인지 문자도 역시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평양의 대동강 강변의 현판으로 쓰이며 관북지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110) 위의 논문 , p. 142.



<그림 20> 효제문자도, 지본채색, 30×74 ,동양문자도, p.228.

그러나 북한의 민화는 (그림20)를 보아도 별다른 흥미로움이나 특징이 들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수만큼은 다른 지방보다 그 화려함이나 기교나 색채가 뛰어나며 우리민족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구는 북한의 특징을 “책가도를 비교해 보면 중국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남한의 화려하며 입체적이고 다 초점의 원근법에 기인한 작품에 비해 북한의 것은 원초적인 화풍도 있으나, 붉은 주색의 채색과 평면적으로 밋밋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을 통해 수집되는 북한지역의 민화나 혁화 그리고 특히 <효제문자도>는 정형의 <효제문자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¹¹¹⁾” 라고 하였다. 북한 지역의 민화를 비교하면 한마디로 남한의 민화와는 화풍이 맞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경기도, 강원도, 북한의 <유교문자도>를 살펴볼 때 그 지방 마다 차이는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충(忠)”자를 놓고 볼 때는 중심소재부터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모두 ‘용’을 중심으로 한 소재에서 그 틀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및 강원도 북한에 그려진 “충(忠)”자의 상징성은 용이 의미하는 상징 중 잉어와 단짝이므로 등용을 뜻하는 입신출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도권 및 강원도 북한 지역에서 보여 지는 유교 문자도 “충(忠)”자에 나타난 그림 도상은 용, 잉어, 대나무, 새우, 조개 등 다섯 개의 소재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면 잉어가 뛰어오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출세를 기원하는 의미이고, 대나무는 유교의 충절을 의미하는 사군자중의 하나이다. 특히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어 물아에 대한 욕심이 없고, 무게 없이 가볍게 힘없이 보일지라도 그 마디마다 단단함과 기상과 성품은 휘어짐 없이 올곧아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절대 휘어짐이 없다. 이런 성정으로 인해 윤선도는 오우가에서 대나무를 사군자 중에서도 지조와 절개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닌 올곧은 선비를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갑각류인 새우와 조개는 갑옷과 같은 딱딱한 껍질의 의미로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정절을 의미한다.

위의 상징적 의미를 조합해 볼 때 수도권 및 강원도 북한 지역에서 보여 지는 어변성

111) 이명구, 앞의 책 , pp. 226~227.

룡은 의미는 ‘선비가 술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어 과거에 급제하고 입신출세하여 백년 해로의 부부애처럼 임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조개가 입의 틈새를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강하고도 강직한과 정절과 지조를 다 하여 섬긴다.’ 라는 전반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필자는 220점의 도상을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수도권 및 강원도 북한 지역에서 보여지는 도상에서 독특한 사상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유교사상의 음양오행설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유교사상에서 음양오행설은 중요한 사상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거자오광의 말을 인용하면 “ ‘오행사상(五行思想)’의 ‘사상(思想)’을 정의하면 사상의 역사는 인류가 문제를 놓고 사고하고 실마리를 찾아온 역사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논하는 것이다.¹¹²⁾” 라고 하였다.

순자(荀子)는 “천지가 화합해서 만물을 낳고, 음양이 교접해서 변화가 일어나며, 자연과 인위가 조화를 이루어 천하가 다스려진다.” 라고 하였다. 유교라고 하면 음양오행설을 빠트릴 수 가 없다. 고로 유교에서는 음식, 옷, 색, 주거 할 것 없이 삶의 전반에 음양오행 사상이 들어 있다. 음양오행사상은 노자가 지은 도덕경에 영향을 주었으며, 공자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고대 중국 황제부터 조선의 역대 왕에 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율곡 이이의 사상을 영향을 받은 수도권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문자도에서는 음양오행 사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앞에서 설명한 그림 12를 유심히 살펴보면 보면 소재가 다섯이라는 5와 뿔을곤을 중심으로 두고 아래에는 현명하고 고귀한 잉어는 여성을 상징하고 위의 ‘용’은 힘이 있는 남성을 상징하여 서로 짝함을 볼 수 있고 또한 수염이 있는 새우는 여근을 상징하는 조개와 짝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나무로 표현된 뿔을곤을 잣대로 두고 위의 주요 소재들이 완벽하게 음양의 조화를 지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이 음양의 조화를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글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한글의 글자 중 모음의 글자는 모두 양과 음으로 나뉘어 있다. 양은 아, 야, 오, 요, 대표적이고 음성은 어, 여, 우, 유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중성으로 간주했다. 양은 하늘이고 음성은 땅이며 중성은 그 사이에 서있는 인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음조화는 조선 중기까지도 엄격하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음조화 음운규칙이 철저히 지켜졌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음운 규칙이 사회, 정치, 경제, 윤리가 문란해 졌고 언어에서도 문란해 졌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말 중에 의성어, 의태어에는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북한은 아직도 모음조화 규칙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민족의 집단사상에 내재 되어 표현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교문자도의 여덟 덕목은 저마다 고유의 뜻을 다 가지고 있다. 여덟 글자 한자[一字]

112) 거자오광, 이성우 역, 『중국사상사』, 도서출판 일빛, 2013, p. 217.

한자[一字] 마다 유교의 도(道)가 녹아져 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및 강원도 북한 지역에서 보여 지는“충(忠)”자 그림 한 장에는 우주의 질서와 삼라만상의 유교사상이 녹아있음을 엿 볼 수 있다.

2. 경상도 및 전라도문자도에 나타난 용·새우의 양상



<그림 21> 유교문자도 8폭 병풍, 34×83cm,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소장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문자도의 (그림 21)을 보면 수도권 및 강원도 북한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도상이 표현되어 있다. 특히 “충(忠)”자는 소재의 표현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및 강원도 북한 지역의 “충(忠)”자에는 용이 화려하게 대나무를 감싸고 있지만 (그림 21)의 도상에는 큰새우가 대나무를 안고 있다. <표 4, 5>지역적 유교문자도의 뚝을 ‘곤(丨)’에 그려진 용과 새우의 백분위를 보면 약 10.3%가 어변성룡의 화작(化作)이고, 82.8%가 새우가 그려진 화제(畫題)이며, 나머지 화제(畫題)는 용, 새우의 도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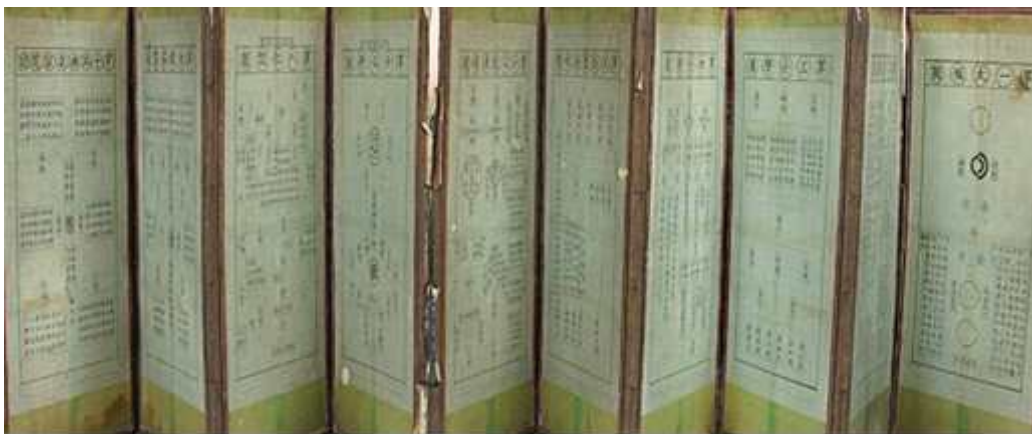
학계에서는 어변성룡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및 강원도 북한 지역에서 새우화제가 7.3% 되는 이유와 새우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에서 어변성룡의 화제가 10.3%가 나온 원인에 대하여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필자는 수렴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披瀝)하고자 한다. 강원도 강릉, 속초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석강 황승규¹¹³⁾의 기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그(최북)는 주로 관동지방에서 일거리가 없을 때에는 멀리 경상도 지방까지 내려가 몇 개월씩 머물다 오곤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최북이 말년에는 일거리가 없자 평양까지 가서 그림을 그렸던 것과는

113) 황성규는 ‘황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경북 평해읍 기성에서 태어나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로 이주했다. 이동명, 강원도민일보, 강원문화재 탐방 35, 2014, 기사문

같다¹¹⁴⁾.” 사람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은 세상과 단절 되지 않는 한 경상도 사람이 강원도에 갈 수 있으며, 강원도 사람이 경상도에 올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는가. 따라서 분석 결과 수치상으로 100%는 아니지만 각 지역마다 특징적으로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지방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추정한다.

경상도문자도가 강원도 문자도와 차이가 가장 큰 것은 “관서지방 효제 문자도와 그 양식에서 매우 흡사한 형태를 보이는 경상도 내륙의 유교문자도는, 관서지방과의 차이점은 주술적인 면이나 그와 관련된 상징물과 장식물은 찾아보기 어렵고 염(廉)자에서 봉황이 반대로 그려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 표현 양식은 거의 유사하다.¹¹⁵⁾” 또한 문자 위주의 회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하고 소박하게 그려졌다. 소재만 보더라도 수도권 및 강원도 북한 지역의 나타난 문자도는 다섯이지만 경상도 및 남도문자도에 나타난 소재는 두 개라는 알 수 있다. 경상도문자도의 상징 도상도 글자의 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글자 획에 연결되어 묘사되었다. 글자의 표현은 주로 세예의 예서체나 행서체에 그 후 초서에 가까운 변형된 체이다. 산수화나 화려함과 부귀를 상징하는 꽃의 붉은 이미지는 없다. 경상도 지역의 유교문자도 ‘치’자 또한 감모여채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위패형도 경상도 지역 사찰에서 거의 대부분이 발견되었다고 한다.¹¹⁶⁾

(그림 22)는 성학십도의 도상으로 퇴계 이황의 사상과 맞물려 있는데 그림이기보다는 선조가 조석(朝夕)으로 상기시켰던 유교경전과도 같다. 각 글자의 부수 혹은 자획에 책가도의 이미지나 퇴계 이 황이 주자성리학으로 도표로 작성한 ‘성학십도’중 일부를 배치하거나 그림의 하단에 팔괘를 그려 놓으면서 성리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22> 성학십도(聖學十圖), 10폭 병풍, 지본채, 38.4×81cm, 숙명여자대학교

114) 이명구, 『동양의 타이포그래피 문자도』, 대한프린테크, 2005, pp. 198~199.

115) 위의 책, p. 198.

116) 신은미, 「조선후기위패형진영의 성립과민화적 요소 고찰」, 『민화와 불교문화-한국민화학회 2013학술발표회』, 2013, pp. 55~57.



<그림 23>. 안동문자도, 8폭 병풍, 지본채색, 74×29.5cm,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그림 24> 안동문자도, 8폭 병풍, 지본채색, 각72×29.5cm,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경상북도하면 안동지방의 유교문자도와 맥을 같이 한다. 안동문자도를 경상도 문자도라 지칭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안동을 위시한 경상도 지방의 특징은 「성학십도(聖學十圖)」¹¹⁷⁾와 결합되어 표현된 경우가 많다. (그림 23)은 퇴계의 성학십도 중 2폭에 해당되는 내용을 10폭으로 병풍을 만들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의 그림을 그린 작가가 이황의 그림인 성학십도를 도식화하고 단순화 시켰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 황의 성리학을 잘 이해하고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림 24)를 보면 책가도와 결합시켜 유교 성리학의 절정을 이룬다. 색채에 대하여 경기도 및 수도권과 강원도를 포함한 북부 지역을 살펴봐도 경상도는 도상이 절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색채 또한 상당히 절제되어 있다. 대체로 수묵을 중심으로 녹색, 푸른색과 붉은 색 계통이지만 오행 중의 중앙색인 황색이 거의 빠져있다. 유교의 본 고장인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에서 어찌하여 유교의 기본인 음양오행사상 중 오방색에서 황색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117) 「성학십도(聖學十圖)」는 조선 선조 임금의 즉위년(1568)12월에 퇴계 이황이 어린 임금을 위해 올린 상소문에 있는 도표로 경연에 입시하였을 때 올린 글이다. 「성학십도(聖學十圖)」는 서론의 내용이 담긴 <진성학십도차>와 10개의 도표와 해설로 되어 있다. <진성학십도차>에는 왕 한 사람의 마음의 정조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경의 내면화를 중요시한다. 십도(十圖)란 태극도(太極圖)・서명도(西銘圖)・소학도(小學圖)・대학도(大學圖)・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인설도(仁說圖)・심학도(心學圖)・경재잠도(敬齋箴圖)・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의 열 가지 이다. 성학십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황 지음/이광호 옮김, 「성학십도(聖學十圖)」, 홍익출판사, 2012. 참조, 사단법인 한국민화센터, 『한국 민화 논총』 도서출판, 2003, p. 736

수도권 및 강원도 북한 지역의 문자도는 “충(忠)”자 안에서 조차도 음양오행을 갖추어 그 색채와 더불어 상징사상에 음양오행사상이 들어 있음이 볼 수 있는데 안동을 비롯한 경상도문자도는 “충(忠)”자의 상징 또한 대나무를 중심 획으로 사용하여 새우가 중요 소재의 전부이다. 이는 유교를 실천 강령으로 하는 조선 선비의 기본 덕목을 나타낸 것으로 검소하며, 난해하지 않으며, 화려하지 않으며, 수수한 본연의 모습이라 하겠다. 퇴계 이황이 유학자로서 선비로서 그 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경상도 지역의 특성상 입신출세보다는 선비로써의 행함이 보여 진다. 유교문자도 용·새우에 대한 이황, 이이의 영향을 받은 지역적 양상을 <표 7/ 표 목록 참조>에서 정리하였다.

경상도 문자도의 도상의 의미를 보면 오로지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올곧은 선비를 대나무로 표현하고 선비 행동의 표상으로써 물아에 욕심이 없으며, 청렴한 선비로서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새우를 그려 간소함과 수수함과 유교의 선비정신으로 임금에게 부부의 인연을 맺어 백년해로 하는 것처럼 임금의 곁에서 늘 변함없이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보좌를 다하여 충성을 한다는 의미라 하겠다.

전라도 지역을 일컫는 남도의 유교문자도 (그림 25)를 보면, 필자는 하늘 위에서 물감을 내려찍어 점묘법의 완성을 나타내는 듯 약 이천 개의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치가 떠오른다. 이런 경치와 더불어 남도의 문화는 이미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도 볼 때도 1300여 년 전 이미 동북아시아의 무역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지리적으로 제주도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라도의 민화는 당연히 남방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남방 문화는 판소리, 민요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상 왕 ‘장보고’가 활약한 완도 청해진 과담양, 강진, 보성, 거문도등 문화의 산실과 같은 꽃을 피운 곳이다.

남방화(南方文化)¹¹⁸⁾ 중 유교문자도는 장식성이 강하게 들어남이 특징이라 하겠다. 남도 유교문자도는 남도 지방만의 정형적인 틀을 깨지 않으면서 상징물이 적절히 응용되어 짐을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고산이나 기암괴석이 상징적으로 크게 변형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남도 지방만이 가지고 있는 정감과 해학부분이 잘 들어나 있다. 도 20의 “충(忠)”자도의 새우만 보더라도 다른 지방과는 다르게 새우의 입은 나발을 붙고 있는 것 같으며 몸통은 통통한 새우의 살을 눌러 호떡 아니 만두를 둥글레 서럽게 납작하게 눌러 놓았던 것 같다.

118) 남방문화(南方文化): 한반도를 형성하는 문화를 살펴보면 두 가지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는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한 추운 기후인 북방지역의 유목(기마)문화와 남태평양 중심으로 한 따뜻한 기후인 남방지역의 농경문화이다. 이명구, 『동양의 타이포 그래픽 문자도』, 대한 프린테크, 2005, p. 206.



<그림 25> 전라도 유교문자도, 8폭 병풍, 지본채색 34×86cm

위에서의 “충(忠)”자의 도안을 보면 경상도 충자와 소재는 같음을 볼 수 있다. 즉 용은 보이지 않으며, 잉어와 조개도 보이지 않는다. 경상도 북부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려진 대나무와 새우를 볼 수 있다. 왜 남도 유교문자도에서는 용과 잉어, 바다를 지척에 두고서도 조개를 회화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영남학파인 퇴계 이황의 유교사상으로 인한 경상도의 회화에 영향을 받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방중 호남은 김중직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시작 된 것으로.¹¹⁹⁾ “16세기 호남의 성리학은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론적으로도 당대 최고 수준이었는데 이는 이황을 비롯한 영남사람과의 학문적 교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¹²⁰⁾”

“이황이 호남사람들과 학문 교류를 활발히 하는 동안 그 문하에 들어가 문인이 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황의 문인록인 『도산급문제현록』에는 담양의 유희춘, 나주의 박순, 보성의 박광전, 광주의 기대승, 장흥의 문위세, 무장의 변성온·변성진, 해남의 윤강중·윤흠중·윤단중, 창평의 양자징, 순천의 김윤명, 화순의 조대중 등 모두 13명의 호남사람이 등재되어 있다.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희춘(1513-1577)

이황과 왕복서한이 있음. 『언행록』에 손수 기록한 것이 3조.

2. 박순(1523-1589)

처음에 서경덕에게 배우고 중년에 이황을 사사함. 출처에 관해 이황과 토론. 이황이 박순에게 답한 시와 박순이 이황을 위해 지은 만시 수록.

3. 박광전(1526-1597)

41세 때 집지하고 도산으로 찾아감. 돌아올 때 이황이 『주자서절요』 초간본 8책과 5편의 시를 줌. 왕복질의가 있음. 이황이 박광전에게 답한 편지와 5편의 시 수록.

4. 기대승(1527-1572)

119) 『점필재집』 「년보」, 성종 18년.

120) 『옥계집』 권6 「년보」, 『소재집』, 김중직·김굉필과 이황 외에도 노진과 노수신 등이 호남사람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 노진은 전주부윤, 담양부사 등 호남지역의 지방관을 5년 이상 역임하면서 호남사람들과 교류 하였으며 노수신은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호남지역에 귀양와 19년 동안 있으면서 호남에서 서경덕계열의 사상 이 형성되는데 기여하였다.

22세 때 문과에 급제하고 이황에게 나아가 절정을 받고 전후하여 사단칠정논변을 벌임. 이황의 묘지문과 묘갈문을 씀. 『언행록』 관련 구절과 편지, 기대승이 이황을 위해 지은 제문 수록.

5. 문위세(1534-1600)

일찍이 윤희춘을 배알하고 13세에 이황 문하에서 배움. 윤구가 이황을 배알하여 문위세를 소개하고 권하여 보냄. 머무르면서 수학하기를 수년 동안 하였으며 주자서에 관해 강론함. 『언행록』 관련 구절 수록.

6. 변성온(1530-1614)

일찍이 김인후의 문하에 유학하고 다시 이황에게 왕래하면서 의심스러운 곳을 물음. 이황이 쓴 시 수록.

7. 변성진(1549-1623)

변성온의 동생. 처음에 김인후에게 배웠으며 이황 문하를 왕래하면서 경서의 뜻을 익히고 물음.

8. 윤강중(1545-1627)

아우 윤흠중, 윤단중, 외사촌 형 문위세와 함께 이황에게 가르침을 받음. 수 개월 뒤 돌아갈 때 이황이 지어준 시 수록.

9. 윤흠중(1547-?)

윤강중의 동생. 이황이 답한 편지 수록.

10. 윤단중(1550-1608)

윤흠중의 동생. 1566년 이황에게 수업함.

11. 양자징(1529-1593)

처음에 김인후에게 사사하였으며 이황에게 나아가 배워서 장려와 인정을 받음.

12. 김윤명(1541-1572)

김윤흠이라고도 함. 관련 기록이 없음.

13. 조대중(1549-1590)

처음에 윤희춘 문하에서 배움. 이황을 서울 집에서 배알하고 안자의 극기복례 및 주돈이의 태극도설에 대해 강론했는데 변론이 절실하고 타당함.¹²¹⁾ “

물론 전라도가 이황의 사상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이 보다 먼저 이 황의 사상이 전파 되었다. 역사적 사실로 볼 때 호남은 16세기에 당대 최고의 이 황의 영남학파의 학문적 교류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17세기에 전라도 유학이 발달, 발전, 분화해 나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전라도 지역 모두가 경상도 유형의 문자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남방계열 유교 문자도가 영향을 받았다

121) 고영진, 『이황학맥의 호남 전파와 유학사적 의의』,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3, p. 26.

는 것이다. 이쪽 부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무튼 바다로 둘러싸인 수많은 크고 작은 섬들이 있어 매도 불구하고 대나무와 풍만한 새우를 분명히 그려진 “충(忠)”자도를 볼 때 참으로 흥미롭고 해학적인 회화에 정감이 가지 않을 수 없다.

3. 제주도문자도에 나타난 용·새우의 양상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특별 자치구역인 제주도의 유교 문자도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자.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진 섬으로 예전에는 도이(島夷),섭라(涉羅),탐라(耽羅),동영주(東瀛州),탐모라(耽牟羅),탁라(托羅)등으로 불리어 졌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두드러진 차이점은 수많은 신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겨울의 최고 추운 절기인 대한 이후 5일째부터 8일간은 제주도 전 마을이 이사를 하거나 어려운 일을 처리하느라 시끌벅적하다. 그 기간 동안은 최고의 신 옥황상제가 자리 비운다는 신구간(新舊間)이라 하여 난리난다고 한다. 이러한 풍속은 오로지 제주도에만 있다.

제주도는 지리적 환경으로 남방 문화의 영향으로 내륙 지방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남방문화의 꽃을 피운 지역이다.

제주도문자도를 보면 2단이나 3단 구성으로 상단 부분은 주로 감모여제도를 상징하는 것과 흡사한 사당이나 누각을 그려 제주도 지방에서 나는 동식물을 상징으로 넣어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하단 부분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행위로써 제물이나 물고기, 풀이나 새 등을 그려 장식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단에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제주도 백성들의 소망이나 기원이 표현되어 있다. 가운데 부분인 중단 부분은 현재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행해야 할 도리인 유교 덕목을 비백서에 가까운 서체로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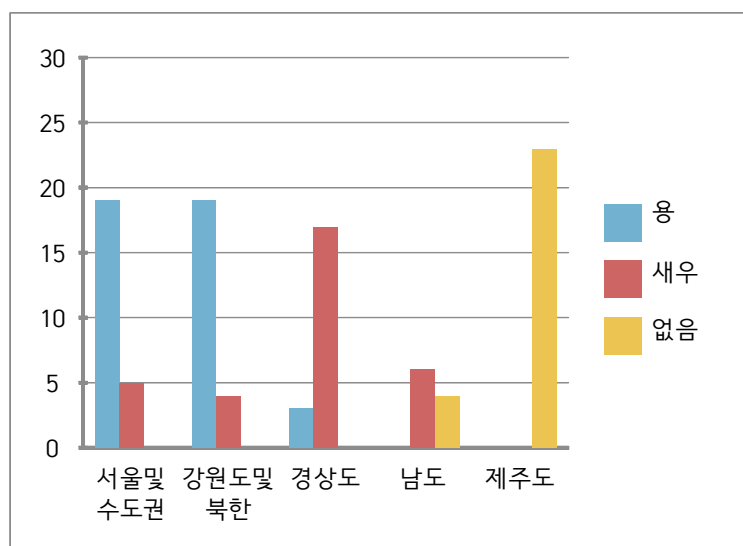


<그림 26> 제주도문자도, 지본채색, 47×168cm,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제주도 백성의 사상은 내륙지방보다 유교의 전래가 어려웠다고 전해진다. 지리적으로 섬 지방으로써 외로이 떨어져서 문화와 역사를 맞이하다보니 내륙지방과 다른 언어 및 풍습이 독특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로인해 그들만의 독특한 풍속에 노출되어 다른 문

화와 사상을 쉬이 받아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교문자도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병풍 때문이다. 제주도에서의 병풍은 중요한 생활 도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¹²²⁾ <표 4, 5>을 보면 수도권 및 강원도 지방이나 경상도 및 전라도지방에 비해 제주도 문자도는 용이나 새우 도상이 100%없다. 즉 제주도를 제외한 각 지방은 용이나 새우의 도상이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제주도문자도에서의 “충(忠)”자의 의미를 유교적인 이데올로기를 두고 해석은 불필요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유교문자도는 병풍으로 애용되었는데 병풍은 교육과 훈육이 아닌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실생활에 자주 이용되었다. 제사나 잔치 때를 비롯해서 관례이든 아니든 항상 병풍이 사용되었다. 즉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유교 문자도의 의미인 아동의 교육용이라든지 선비의 내재 방에서 장식을 주어 학문을 증진의 분위기 조성으로는 활용되어지진 않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의 개벽신화(開闢信和)¹²³⁾와 더불어 지역적 환경과 지리상 내륙 지방의 문화와 정치적으로 왕의 명(命)에도 수용하기 힘들었던 유교 문화가 유학자의 유배지로 선정되면서 병풍과 맞물려 지금까지도 유교 덕목인 여덟 자가 잘 보존되어 있다.

<그래프 1> 지역적 유교문자도의 뚝을 ‘곤(丨)’에 그려진 용과 새우의 그래프



122) 진성기,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제주민속연구소, 2003, pp. 220~225.

123) “신화의 뿌리는 크게 초월신화와 조상신화로 구분되는데, 초월신화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인 ‘하느님’이나 유교식의 ‘천제(天帝)’, 선교(仙敎)식으로 ‘오성상제(五星上帝)’에 관한 이야기이다. 조상신화는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최초의 인물인 ‘시조(始祖)’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명구, 『동양의 타이포그래피 문자도』, 대한프린테크, 2005, p. 213.

위의 각 지방의 사료들을 가지고 검토하였을 때 경상도 지역인 퇴계가 주로 활동한 지역에는 대나무에 새우의 도상이 약80%이상이고 율곡이 주로 활동한 강원도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나무에 용의 도상이 약90% 이상이 도출되었다 <그래프 1 참조>. 따라서 유교문자도의 지방적 특색은 이황과 이이의 사상이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 할 수 있다.

V. 결 론

조선의 유교 정착은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로 이어왔지만 천년이나 되는 불교문화와 도교의 영향으로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고려시대의 불교가 비대해짐으로 해서 경제적, 사회적 많은 모순과 폐단을 가져왔기에 조선의 관료들은 억불숭유(抑佛崇儒)을 정책적으로 실시했다. 조선의 초기의 정치개혁은 민본정치, 자국부강(自國富強), 민생교화이다. 민생교화란 불교와 도교, 토속신앙의 의식에서 유교의 의식화 과정을 말한다.

조선 중기가 넘어서도 쉽사리 백성들의 교화는 어려웠고 18세기 이르러서야 민중의식이 싹트면서 유교의 전반화가 시작이 된다. 이러한 유교의식이 백성들에게 각인이 되게 영향을 준 거인(巨仁)이 바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다.

한반도는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인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과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인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의 두 사상이 양분화 되어 민간인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적인 모든 것에 영향을 주었다. 인종과 선조의 스승이었던 이황을 따랐던 지역인 경상도는 성학십도를 구심으로 한 유교의 문자도가 이루어져 교화 및 장식의 역할을 하였고, 율곡이이는 강원도와 한반도 북부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용>과 <음양오행>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교화와 장식 및 의식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18세기 사회변동과 상·공업의 발달로 신분 계층이 무너지면서 민중의식이 싹트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활발히 일어났다. 민화는 가장 한국적이고 우리나라에서 우리지역에서 우리의 역사와 함께 썰물과 밀물처럼 자연스럽게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동거동락(同居同樂)하면서 운명의 사슬로 엮여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사상과 삶으로 엮어진 오색의 실타래처럼 묶여 우리 민족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한국 회화 민화 중 <유교문자도>는 우리 민족의 철학사상이 인문사회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특징으로 나타난다.

다시 한 번 언급하면 지역적 특성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 낸다. 특히 인문환경에는 교육·사상·예술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교육·사상·예술이 다 나타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유교문자도이다. 유교문자도는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

(恥)로 유교 경전인 소학을 따른다. 그 중에서 충(忠)자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난다. 하나는 어변성룡이고 다른 하나는 주제가 새우로 화작이 된 것이다. 충(忠)자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방의 특징과 관계가 깊다. 용의 그림은 이이의 사상을 영향을 받은 강원도 및 수도권에 많이 출토되고, 새우의 그림은 이황의 영향을 받은 경상도에 많이 출토된다. 이황과 이이는 16세기부터 유교의 꽃을 피울 만큼 밑거름이 되었고, 유교의 정책은 조선의 왕조의 중심의 정책이라는 것을 부인 할 수 없을 만큼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이황, 이이의 사상 역시 조선 서민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국가의 정책으로 온 백성의 유교화(儒敎化)를 위해 조선왕조가 애를 써서 노력한 수고로움이 근대화 입문에서 민중의 의식이 지역적으로 변모되어 상징적인 민중예술로 창조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참고 문헌】

(국내 고문)

高麗史〈上〉 p. 117. 〈鄭夢周傳〉, p. 563.

『光海君日記』, 28권, 광해군 2년 4월 16일 (신묘).

葛庵集 續集 제1권 / 서(書)

거자오광, 이성우 역, 『중국사상사』, 도서출판 일빛, 2013.

金 圻, 『北厓集』 권 2, 「鄉約」.

본초강목, 린鱗 部部.

『三國志 吳書』, 卷48, 『三嗣主傳 孫皓 晉書』 卷33, 王祥列傳.

『成宗實錄』, 성종15년8월, 경신의 사평.

『世宗實錄』, 2권, 세종 즉위년 11월 3일, 기유 12번째 기사.

『世宗實錄』, 41권, 세종10년9월27일, 병자년 6번째 기사.

小獸林王(高句麗, 2년), 『동사강목(東史綱目), 제2하』, 임신년 신라 내물왕 17년.

宋申用, 『한산거사(漢山居士)』

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도하/관직 연혁도(官職沿革圖)』

阮當先生, 『阮當先生全集』, 卷首, 「阮當金公小傳」 제3권.

『玉溪集』, 권6, 「년보」, 『소재집』.

李圭景,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 3.

李 瀾, 『성호사설(星湖僊說)』 제21권, 경사문, 고조·소열의 기사문.

仁 祖,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5책, 〈탈초본 1책〉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2집 4권 수록,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와 동 1집 12권.

『英祖實錄』, 영조 32년, 무진년 10, 기사문.

『英祖實錄』, 영조31년, 1755, 5월 기사문.

栗谷全書2, 28권.

『佔畢齋集』, 「년보」, 성종 18년

崔 氏, 『신당서(新唐書)에서 보충』

退溪集, “(東史)高句麗小獸林王二年。秦王苻堅遣使。送胡僧順道及佛像佛經。又百濟近仇首王九年。胡僧摩羅難陀。自晉至。東國之有佛教始此”

洪萬宗, 『순오지(旬五志)』, 조선 인조.

(국내 도서)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도학의 위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덕균, 「효의관정에서 바라본 선진우가의 사생관과 제사의식의 실제」, 『민속학술자료
총서, 574, 예측제 제사10』, 우리마당터, 2004.

김종석, 「안동유학의 형성과정과 특징」, 『안동, 안동문화, 안동학』, 한국국학진흥원, 2012.

김태영, 『조선성리학의 역사상』,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6.

박대재, 「조선사연구회」, 『한국사 연구 입문내용』,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박용숙, 『샤먼문명』, 소나무와 민들레, 2015.

박종홍, 「한국의 인간상 4」, 『성리학의 진수』, 신구문화사, 1971.

사단법인 한국민화센터, 『한국 민화 논총』, 도서출판, 2003.

송양섭, 『조선시대 향약에 관한 사회 교육적 고찰-율곡이이의 향약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4권, 1995.

안상수, 『전통문양 자료집-용무늬』, 서울: 안그라픽스, 1995.

안상수, 『용무늬의 기원과 변천-한국전통문양집 7권 용무늬』, 안그라픽스, 1995.

이명구,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Leedia, 2005.

이상국, 「경상도 유교문자도 연구」, 『한국민화논총』, 도서출판 황금알, 2017.

이동철, 『한국 용설화의 역사적 전개』, 민속원, 2005.

임돈희, 『조상제례』, 대원사, 2004.

윤동환, 『동해안의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민속원, 2010.

장태현, 『동물의 미술』, 설화당, 1979.

정연학, 『용과 중국문화, 용: 그 신화와 문화』, 서영대·송화섭 편, 민속원, 2002.

정재훈, 『조선시대의 학파와 사상』, 신구문화사, 2008.

조남호, 『이황과이이 조선의 정신을 세우다.』, 김영사출판, 2013.

조선사연구회, 박대재 옮김, 『한국사 연구 입문내용』,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최현재, 『한산거사(漢山居士)-송신용(宋申用)교주(校註)』, 正音社, 1949.

허 군,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교보문고, 1991.

허 군, 『옛그림을 보는 법-전통미술의 상징세계』, 돌베개, 2014.

현상윤, 『조선유학사』, 현음사, 2003.

(국내논문)

곽진주, 「향약의 지역공동체 평생 교육적 분석」,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고영진, 『이황학맥의 호남 전파와 유학사적 의의』,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3.

김복섭, 「孔子와 조광조의 도에 관한 비교 연구-부제주자학의 설계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김상현, 「이황 철학 리 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성찬, 「민화『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 의미 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정보디자인학회, 2015.

- 김영태, 「신라불교에 있어서의 용신사상」, 불교학보11,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74.
- 김지영, 「전통문화에 수용된 상상 동물의 도상해석학적 분석-사령수(四靈獸) 민화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학술 논문, 2017.
- 박미현, 「강원여성사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박소빈, 「용의 상징성과 조형성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 서종진, 「근대일본교육칙어의재생」, 동북아시아 역사재단 뉴스레터, 2017.기사문
- 신은미, 「조선후기 위패형 진영의 성립과 민화적 요소 고찰」, 『민화와 불교문화-한국민화학회 2013학술발표회』, 2013.
- 심수지, 「조선후기 민화 문자도의 도상 변화와 화법」, 『한국 디자인문화 학회지』 13권 NO.2,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7.
- 안호숙, 「조선후기 민화(民畵)에 나타난 미의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양명학, 「한국소설에 나타난 용과 용궁의 상상」, 울산어문논집3:울산대 국어국문학과, 1987.
- 오세창외, 『嶺南鄉約資料集成』,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6.
- 이상익, 「퇴계 성리학의 퇴계학의 본령」, 퇴계학보 제121집, 2007.
- 이종관, 『십이지와 띠 문화에 관한 근원적 고찰』,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 이창원, 이성원, 「조선시대 다산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연구」, 한국 디자인 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8.
- 이경미, 「한국고대 용봉문양의 역사고고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장혁, 「불교경전에 나타나 용의 상징성연구」, 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희주, 「조선초기군신도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유희승, 「한국 문인화의 독자성에 대한 고찰-조선조후기 화가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윤열수, 「강원도 지역 민화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회』 제9호, 2008.
- 윤열수, 「문자도를 통해 본 민화의 지역적특성과 작가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전지윤, 「유교문화가 조선후기 민화에 미친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조에스더, 「조선 왕조 후반기 어해도의 상징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 진성기,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제주민속연구소, 2003.
- 정진영, 「향약, 퇴계가 꿈꾼 이상사회」, 안동학연구12, 2013.
- 판리리, 「16~19세기의 韓中 鄉約에 대한 比較 研究」,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황정희, 「조선시대 어해도(魚蟹圖)의 상징적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12.
- 황민정, 「한국고대사회의 용신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외국도서)

李退溪-その行動と思想,阿部吉雄, 評論社, 1977.
李退溪と敬の哲學,高橋進, 東京東洋書院, 1985.
장리원[張立文],『退溪書節要』,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9.

(해 설)

이동명, 「강원문화재 탐방 35」, 강원도민일보, 2014.

(민화도록)

이명구,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지역에 따른 표현 양식의 특징』, Leedia, 2005.
윤열수, 『文字圖를 통해 본 民畵의 地域的 特性과 作家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정병모, 「책거리와문자도」, 『한국의 채색화』, 다할미디어, 2013.
정병모, 『민화는 민화다』, 다할미디어, 2013.
정병모 『UnderstandingChaesakhwa』, 2015.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Folk Painting』, 2004.
경산시립박물관, 『목가구와 민화』, 2008.
영남대학교 박물관.

< 표 목 록 >

	표 1									유교문자도에 나타난 각 문자별 분석표	
연번	명 칭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	출 처	소 장
1	효 제 문 자 도					○	○	○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2	효 제 문 자 도	○	○	○	○	○	○	○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3	효 제 문 자 도	○	○	○	○	○	○	○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4	효 제 문 자 도	○	○	○	○	○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5	효 제 문 자 도	○	○	○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6	효 제 문 자 도			○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7	효 제 문 자 도	○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8	효 제 문 자 도			○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9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10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11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12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13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14	효 제 문 자 도	○	○	○	○	○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15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16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17	효 제 문 자 도				○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18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19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20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21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22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23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24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25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26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27	효 제 문 자 도	○	○	○	○	○	○	○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28	효 제 문 자 도			○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29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30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31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32	효 제 문 자 도		○	○	○	○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33	효 제 문 자 도	○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34	효 제 문 자 도		○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35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36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37	효 제 문 자 도				○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38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39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40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41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42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43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44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45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46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47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48	효 제 문 자 도	○								東洋의 타이포그래피-文字圖	

[illegible]

[illegible]

154	효 제 문 자 도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55	효 제 문 자 도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56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57	효 제 문 자 도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58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59	효 제 문 자 도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60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61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62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63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64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65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66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67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68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69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70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71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72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73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74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75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76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77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178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계명대학교박물관
179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계명대학교박물관
180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계명대학교박물관
181	효 제 문 자 도	o	o								계명대학교박물관
182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계명대학교박물관
183	효 제 문 자 도	o	o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184	효 제 문 자 도					o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185	효 제 문 자 도					o	o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186	효 제 문 자 도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187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188	효 제 문 자 도		o	o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189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190	효 제 문 자 도	o	o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191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192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193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194	효 제 문 자 도	o	o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195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196	효 제 문 자 도			o	o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197	효 제 문 자 도	o	o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198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199	효 제 문 자 도	o	o	o	o	o	o	o	o	UnderstandingChaesaekhwa	

200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한국의 채색화	
201	효 제 문 자 도						○	○	○		한국의 채색화	
202	효 제 문 자 도						○	○	○	○	한국의 채색화	
203	효 제 문 자 도	○								○	한국의 채색화	
204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한국의 채색화	
205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한국의 채색화	
206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한국의 채색화	
207	효 제 문 자 도	○	○	○	○						한국의 채색화	
208	효 제 문 자 도	○	○	○	○	○	○				한국의 채색화	
209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한국의 채색화	
210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한국의 채색화	
211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한국의 채색화	
212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한국의 채색화	
213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한국의 채색화	
214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한국의 채색화	
215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CHAEKGEORI	
216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문자도를통해본민화의지역적특성과작가연구	윤열수논문
217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문자도를통해본민화의지역적특성과작가연구	윤열수논문
218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경산시립박물관
219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경산시립박물관
220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영남대학교박물관
221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영남대학교박물관
222	효 제 문 자 도	○	○	○	○	○	○	○	○	○		영남대학교박물관

<표 1-1>

유교문자도 도상 목록

(100점)

도 상 번 호	작 품 명	수 록	소 장	재 질	제 원(각)	기 타
1	효제문자도		영남대학교	지본 채색	447×168cm	
2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40.3×85cm	
3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5.5×95.5cm	
4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3.2×87cm	
5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3×91cm	
6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5×88.5cm	
7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2×86cm	
8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5×95cm	
9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1.5×61cm	
10	효제문자도		경 산 시 립 박 물 관	지본 채색	32.5×78cm	
11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4×76.6cm	
12	효제문자도		계명대학교	지본 채색	28×78cm	
13	효제문자도		계명대학교	지본 수묵	34×91cm	
14	효제문자도		계명대학교	지본 채색	34×83cm	
15	효제문자도		계명대학교	지본 채색	34×83cm	
16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자수	80.5×21.5cm	
17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자수	79×29.5cm	
18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목판 채색	33×64cm	

19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목판본	30×54cm	다색목판본, 20세기 초
20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수묵	26×44cm	혁화 경상도
21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계명대학교	지본 채색	33×57cm	
22	효제문자도		호암미술관 소장	지본 채색	42.5×74.2cm,	
23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46×98cm	
24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0.5×90cm	
25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색채	31.7×92.3cm	
26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28×78cm	
27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25.7×76.4cm	
28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2×54cm	
29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0×91.5cm	
30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4×100.5cm	
31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3×70cm	
32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8×83.5cm	경상도문자도 전형적인 특징 양식
33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동산방소장	지본 채색	33×56cm	
34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28.5×85.5cm	관서지방과 거 의 유사한 전 형적 특징양식
35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4.4×66.4cm	
36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7×65.5cm	
37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29.7×71.5cm	

38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2.5×100.5cm	
39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2.7×108.5cm	
40	효제문자도		개인소장 (이명구)	지본 채색	105.5×33.5cm	이규황 작 (명문이 있음)
41	효제문자도	Understanding Chaesakhwa		지본 채색	90×34.2cm	경상도특징
42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개인소장	지본 채색	32×50cm	
43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42×68.5cm	
44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동산방소장	지본 채색	38×54.5cm	남도문자도전 형적 특징
45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4×86cm	
46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7.5×81.5cm	
47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41.6×85cm	
48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수묵	30.2×50cm	
49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1×78cm	
50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42×85.5cm	
51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41×92cm	
52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29.8×84.5cm	
53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44.3×87cm	
54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47×90cm	
55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9.5×88.5cm	
56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9.5×88.5cm	
57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7.5×80.3cm	

58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47×92.5cm	내륙지방의 병 풍 장식의 꾸 밈과 다름
59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2.2×93.7cm	내륙지방의 병 풍 꾸밈 장식
60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9.3×88cm	
61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29×88cm	
62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0×74cm	북한문자도
63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50×90.5cm	
64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1.2×56.2cm	내륙관서
65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30.7×80cm	내륙관서
66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27×92cm	내륙관서
67	효제문자도	東洋의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 채색	27×92cm	내륙관서
68	효제문자도		가회민화박물관	지본 채색	104≒33cm	이규황작
69	효제문자도	한국의 채색화	프랑스,파리 기 메 동 양 박 물 관	지본 채색	75×34cm	
70	효제문자도	한국의 채색화	프랑스,파리 기 메 동 양 박 물 관	지본 채색	60×27cm	
71	효제문자도	한국의 채색화		지본 채색	62.7×34cm	
72	효제문자도	한국의 채색화		지본 채색	90.2×34.2cm	
73	효제문자도	한국의 채색화	선문대학교 박물관	지본 채색	83.5×34cm	남도
74	효제문자도	한국의 채색화		지본 채색	97.5×48cm	
75	효제문자도	한국의 채색화		지본 채색	106×37cm	
76	충자도	민화는 민화다		지본 채색	84×34cm	남도

77	효제문자도		가회민화박물관	지본 채색	74×29.5cm	안동문자도
78	효제문자도		가회민화박물관	지본 채색	72×29.5cm	
79	효제문자도		가회민화박물관	지본 채색	73×30.5cm	
80	‘충’자도		가회민화박물관	지본 채색	70≠32.5cm	안동지역 문자도
81	‘치’자도		가회민화박물관	지본 채색	89≠35cm	안동지역 문자도
82	효제문자도		계명대학교 박물관	지본 채색	34×83cm	
83	효제문자도		가회민화박물관	지본 채색	110×51cm	제주도문자도
84	효제문자도		가회민화박물관	지본 채색	88×38cm	
85	효제문자도		가회민화박물관	지본 채색	95×36cm	
86	효제문자도	Understanding ChaesaeKhwa	프랑스 파리 기메동양박물관	지본 채색	97.5×48cm	
87	책거리 효제문자도		가회민화박물관	지본 채색	104≠33cm	8폭 황승규 작
88	화조 효제문자도		가회민화박물관	지본 채색	128≠35.5cm	8폭 황승규작
89	효제문자도		가회민화박물관	지본 채색	97cm≠30cm	8폭 이종하
90	효제문자도		가회민화박물관	지본 채색	65≠31cm	8폭 김창익
91	효제문자도		가회민화박물관	지본 채색	78≠28cm	북한, 평해, 원북면의 강촌 작
92	효제문자도		거창 민속박물관소장	지본 채색	68×32.5cm	북한 이동호작
93	효제문자도		가회민화박물관	지본 채색	128×35.5cm	강원도
94	효제문자도	Understanding ChaesaeKhwa		지본 채색	83.5×34cm	남도
95	효제문자도	Understanding ChaesaeKhwa		지본 채색	106×37cm	제주도
96	효제문자도	Understanding ChaesaeKhwa		지본 채색	60×27cm	경상도
97	책거리 효제문자도	Understanding ChaesaeKhwa		지본 채색	75×34cm	경상도

98	효제문자도	Understanding Chaesaekhwa		지본 채색	66,0×34cm	강원도
99	효제문자도		계명대학교 박물관	지본 채색	32×76cm	제주도
100	효제문자도	東洋의 타이포그래피 -文字圖		지본색	44×88cm	제주도

<표 4>

지역적 유교문자도의 뚫을 ‘곤(|)’에 그려진 용과 새우의 有無

(100점기준)

도 상 번 호	총 작 품		지 역									
			서울및수도권		강원도및북한		경 상 도		남 도		제 주 도	
	용	새우	용	새우	용	새우	용	새우	용	새우	용	새우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				
35		○						○				
36		○						○				
37	○						○					
38	○						○					
39	○						○					
40	○		○									

41		○		○								
42	×	×							×	×		
43	×	×							×	×		
44		○								○		
45		○								○		
46		○								○		
47	×	×									×	×
48	×	×									×	×
49	×	×									×	×
50	×	×									×	×
51	×	×									×	×
52	×	×									×	×
53	×	×									×	×
54	×	×									×	×
55	×	×									×	×
56	×	×									×	×
57	×	×									×	×
58	×	×									×	×
59	×	×									×	×
60	×	×									×	×
61	×	×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				
71		○						○				
72		○						○				
73	×	○								○		
74	×	×									×	×
75	×	×									×	×
76		○								○		
77		○						○				
78		○						○				
79		○						○				
80		○						○				
81		○						○				
82		○						○				
83	×	×									×	×
84	×	×									×	×
85	×	×									×	×
86	×	×									×	×
87	○				○							

88	○				○							
89	○				○							
90	○				○							
91	○				○							
92	○				○							
93	○				○							
94		○								○		
95	×	×									×	×
96		○						○				
97		○						○				
98	○				○							
99	×	×									×	×
100	×	×									×	×
합계	41	32										

<표 7> 유교문자도 용·새우에 대한 이황·이이의 영향을 받은 지역적 양상

지 역	도 상 변 호	용 (有)	새 우 (有)	용, 새우 (無)	이 황 영 향 지 역	이 이 영 향 지 역	기타	도 상 출 처
서 울 및 수 도 권	1	○				○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지역에 따른 표현 양식의특징 서울, 경기 및 수도권 지역편 (이명구저, 도상 목록 참조) ¹²⁴⁾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합 계		19	5			24		
강 원 도 및 북 한	1	○				○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지역에 따른 표현양식의특징 관서, 관동, 북한 지역편 (이명구저, 도상 목록 참조)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관 서 ¹²⁵⁾	

	12		○			○	관서	文字圖를 통해 본 民畵의 地域的 特性과 作家 研究¹²⁶⁾ 강원도 지역편 (윤열수논문, 도상 목록참조) UnderstandingChaesakhwa(정병모 저)
	13		○			○	관서	
	14		○			○	관서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합 계		19	4			23		
경 상 도	1		○		○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지역에 따른 표현 양식의특징 경상도 지역편 (이명구저, 도상 목록 참조)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文字圖를 통해 본 民畵의 地域的 特性과 作家 研究 경상도 지역편 (윤열수논문, 도상 목록참조)
	10		○		○			
	11		○		○			
	12		○		○			
	13		○		○			
	14		○		○			한국의 채색화(정병모저)¹²⁷⁾
	15		○		○			
	16		○		○			
	17		○		○			
	18		○		○			UnderstandingChaesakhwa (정병모저)
	19		○		○			
	20		○		○			계명대학교박물관
	21		○		○			
합 계		3	18		21			
남 도 (128)	1			○	○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지역에 따른 표현 양식의특징 경상도 지역편 (이명구저, 도상 목록 참조)
	2			○	○			
	3		○		○			
	4		○		○			
	5		○		○			민화는 민화다(정병모저)¹²⁹⁾
	6		○		○			
	7		○		○			한국의 채색화(정병모저)
	8		○		○			
								UnderstandingChaesakhwa(정병모

								저)
합 계			6	2	8			
제 주 도	1			○				계명대학교박물관
	2			○				UnderstandingChaesaekhwa ¹³⁰⁾ (정병모저)
	3			○				
	4			○				한국의 채색화(정병모저)
	5			○				
	6			○				각주2, 참조
	7			○				
제 주 도	8			○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 지역에 따른 표현 양식의특징 제주도지역편 (이명구저, 도상 목록 참조)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합 계				24				

124) 이명구, 『東洋의타이포그래피-文字圖지역에 따른 표현 양식의특징』, Leedia, 2005, pp. 166~228.

125) 강원도 회양군과 함경 안변군과의 경계에 있는 철령을 뜻하는 지방명으로 골짜기로 둘러싸인 높고 험준한 산악지형이며 한반도의 서북부를 말한다. 즉 산간 내륙형 지방이다.(사전)

126) 윤열수, 『文字圖를 통해 본 民畵의 地域的 特性과 作家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p. 139~165.

127) 정병모, 「책거리와문자도」 『한국의 채색화』, 다할미디어, 2013, pp. 296~335.

128) 전라도와 경상도 남서부(남해안) 및 충청도 일부지역 (사전)

129) 정병모, 『민화는 민화다』, 다할미디어, 2013, pp. 84~89.

130) 정병모 『UnderstandingChaesaekhwa』, 2015, pp. 125~128.

儒敎文字圖 “忠”자에 나타난 象徵性 研究

이 주 선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지도교수 오 세 덕

(국문초록)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 여덟 자의 유교문자도 중 “충(忠)”의 양상에 퇴계와 율곡 사상이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 밝히기 위해 역사와 자연환경을 정리하고 유교 문자도의 등장과 배경을 고찰하며, 민화 중 유교문자도의 유착과정을 살펴보았다.

유교문자도는 서민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조선의 유교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선 왕조의 유교정책은 “충(忠)”, “효(孝)”를 중심으로 하여 소학의 생활 실천을 근거를 두고 있다. 소학의 실천과 교육은 향약과 서당, 서원을 통하여 사회전반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향약의 모퉁이 돌이 된 것이 이황의 예안향약이며 율곡의 서원향약이다. 이 향약이 조선 말기 까지 서민생활의 규범이 된다.

유교문자도는 사대부 양반뿐만 아니라 서민의 생활가운데 조선의 정책과 더불어 교육과 교훈을 위해 실시되었다. 소학의 내용을 중심으로 익히고 답습하기 위하여 아동방이나 선비들의 학업 정

진을 위하여 선비들의 글공부 방 뒤에 돌려 쳐졌다.

18세기 후반 19세기 이르러 유교문자도는 지역적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크게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으로 한 위의 지방과 경상도 안동을 중심으로 한 아래 지방과 제주도 지방으로 나눌 수 있다.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자도의 특징 중 “충(忠)”의 도상을 보면 대나무에 용(龍)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양상은 율곡의 이이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도 안동 중심으로 한 아래 지방은 대나무에 새우[鰕]가 크게 그려져 있는 도상이 대다수다. 이러한 양상은 이황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제주도 지방은 대륙과 떨어진 특별자치 섬으로 어떠한 사상적 의미가 부여 되지 않는 것으로 용(龍)이나 새우[鰕]의 도상이 거의 없다. 대나무에 용이 그려진 도상은 어변성룡(魚變成龍)의 용으로 입신출세(立身出世)를 의미한다. 대나무에 새우가 그려진 도상은 새우의 상징인 지조와 절개 허리가 구부릴 정도로 충성을 의미한다.

이이는 강원도내륙이 아닌 영동지역으로 동해 바다와 가깝다. 또한 태몽으로 신사임당이 동해안의 용(龍)을 품었다. 따라서 지리적 환경과 이이의 태몽과 학업, 사회적 추진을 미루어 볼 때 대나무에 용의 양상은 이황 보다 이이가 더 가깝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황은 산간내륙의 안동지방으로 바다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한 이황의 어머니 박씨는 태몽으로 학(鶴)을 품었다. 따라서 이황은 자연적·지리적 환경과 학업, 업적으로 보았을 때 새우가 허리가 구부릴 정도로 충성을 맹세하는 선비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용과 새우의 도상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는 제주도는 한반도 남쪽의 큰 섬으로 성리학의 사상을 논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제주도는 이미 일 천개 정도의 신(神)이 있다. 제주도민 대부분은 신을 모시고 있었기에 조선의 유교적 사상을 기억 시키고 상기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의 정책적 수립에도 불구하고 유교화가 되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지리적 영향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제주도 문자도가 잘 보존되어 내려오는 것은 많은 유학자들의 노력과 조선왕조의 끊임없는 백성의 유교화 추진이라 본다. 그러한 노력이 제주민의 병풍이라는 생활의 가구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오늘날 까지 제주도 유교문자도가 전해져온다

주제어 : 조선의 유교정책, 향약, 소학, 서당, 서원, 퇴계, 율곡, 용, 새우

A Study on the Symbolism “LOYALTY” in Confucian munjado

LEE, Ju-Seon

Department of Cultural propertie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Written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 OH, Se-Deok)

<Abstract>

Confucian munjado has filial piety, brotherly love, loyalty, trust, propriety, righteousness, integrity, sensitivity in eight-panel folding screen. I organized histor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reviewed the appearance and background of confucian munjado, and looked at the process. In addition, Confucian munjado loyalty of Toigye and Yulgok in the said Strategy and the influence.

Confucian munjado was used by the common people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fucian policy of Choseon. The confucian policy of the Choseon Dynasty is based of the Sohak of ‘loyalty’ and ‘filial piety’. The practiced and education of the So-Hak was promoted throughout society through the use of Hyan-yak, Seo-Dang, Seowon. The corner stone of this Hyan-yak is Toigye’s Yean-Hyan-yak and Yulgok’s Seowon-Hyan-yak. This Hyan-yak becomes the normal of the common people’s life until the end of Choseon Dynasty.

Confucian munjado was focused on children’s room and scholars’ study rooms to help them study.

Confucian munjado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had a distinct regional aspect. there are three types of these : Seoul metropolitan Area, Gangwon Province, Gyeongsang Province, and Jeju Island. Most of the paintings ‘loyalty’,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Gangwon-do show dragons painted brilliantly on bamboo. This pattern is assumed to thave been influenced by the Yulgok. If you look

at the picture of the 'loyalty' in Gyeongsang-do most of them have large shrimps on the bamboo. This pattern is believe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oigye. There are few dragons or shrimps in the picture of Jeju Island. This pattern is believed to have had little impact on the region, which is a special autonomous region away from the continent.

Painting of dragons on bamboo stands for the rise and rise a fish metamorphosed into a dragon. Painting of shrimp on bamboo means fidelity and incision, which means loyalty to the waist.

Yulgok Yeongdong area, not a huge interior plateau, Gangwon Province Dong-hae to near the sea. Conception dreams also by Shin- Saim-Dang was a dragon in the East Sea. Therefor, considering the geographic environment and the academic and social promotion, we can assume that the picture of dragons in bamboo is closer to Yulgok than Toigye. Toigye, considering the geographic environment and the academic and social promotion, it can be assume that the Seon-bi, who swears loyalty enough for the shrimp to bend at the waist is closer. Jeju Island, which does not have a clear picture of dragons and shrimps, is a large island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oes not need the discuss confucian ideas.

Jeju Island has a thousand gods. As most Jeju people have gods, it is never easy the to remember and recall the confucian idea of Choseon. Despite the policy establishment of Choseon, it was not possible to become confucian because of geographical influence. Because this environment created their own unique culture.

To this day, however, I believe that the preservation of Jeju munjado is due to the efforts of many confucian scholars and the continuous confucianization of the Choseon Dynasty. Such effort are being used as tools for furniture of Jeju people's daily lives, and Jeju Island is still being passed on to this day.

Keyword: Policy of the Choseon Dynasty adopted Confucianism, Hyan-yak, Seo-Dang, Seowon, Sohak, Toigye, Yulgok, Dragon, Shrimp